

미원의 첨단발효기술이 탄생시킨 저칼로리 감미료 “그린스위트”



세계수준의 발효기술로 만든 건강감미료 그린스위트

그린스위트는 당질이 아니고, 아미노산계 감미료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거의 없어 비만이나 당뇨, 충치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다이어트하는 젊은 여성들도 살짝 염려없이 단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수준의 발효법을 이용한 제조기술

그린스위트는 단백질 식품에 흔히 존재하는 아미노산 성분인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르트산을 결합시킨 아미노산계 감미료입니다. 미원은 그린스위트의 원료인 페닐알라닌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고수율 대량생산 기술특허를 미국으로부터 획득하였으며 지난 '93년 11월 국내 식품업계

최초 국제품질인증인 ISO 9002를 획득했습니다.

자연의 달콤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린스위트

그린스위트는 과일, 야채, 우유 등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으로 만든 '아스파람'이 주성분이므로 천연식품과 동일하게 소화되며 뒷맛이 부드럽고 산뜻합니다.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그린스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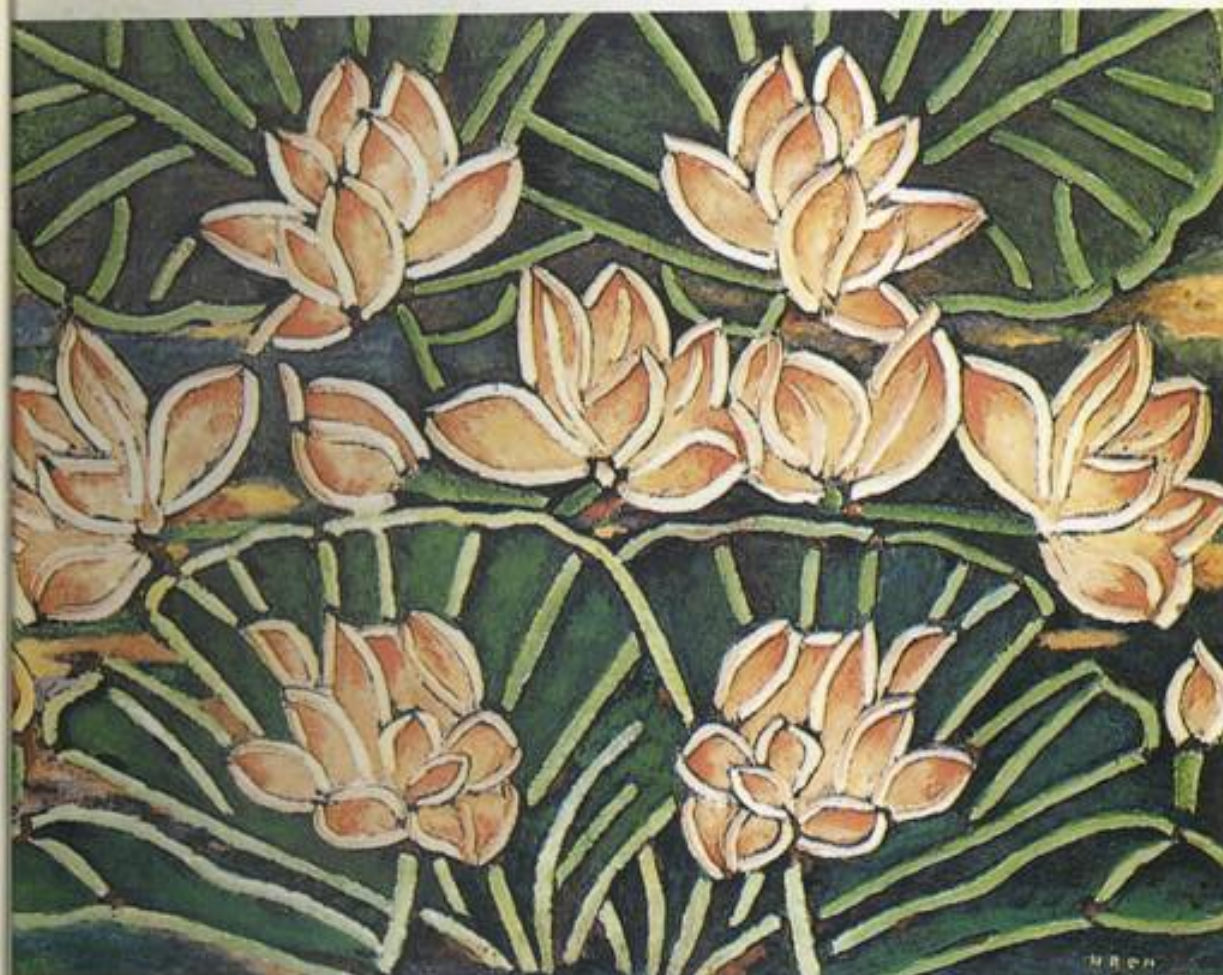
- 가정의 설탕 대용품
- 커피, 우유, 국산차, 과일화채, 각종 요리시 설탕 대용으로
- 롤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
- 과자, 캔디, 젼 등의 제과류
- 캔커피, 커피믹스, 코코아믹스 등의 분말 다류
- 아이스크림, 사뱃, 푸딩, 유산균 음료 등의 디저트식품
- 당의정, 씹어먹는 의약품, 시럽



MIWON (주)미원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여성



특·집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여성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96·1·2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링클케어 덕분에...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있게 웃고 있습니다.

링클케어가 웃음을 찾아드렸습니다.

요즘 링클케어 덕분에 자신있게 웃을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고만연 세월의 흔적과 자욕을
가려주는 링클케어 링클케어는 영양성분과
수분만을 공급해주는 에센스와는 달리
지질역정제 구조로 세월의 흔적과 자욕을
가려 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자신있게 웃을 수 있도록
링클케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링클케어



■ 링클케어 크림
● 50g - 48,000원

■ 링클케어 에센스
● 35ml - 48,000원



■ 링클케어 EYE 젤 마스크
(WRINKLE CARE EYE GEL MASK)
● 30ml - 50,000원

월간 여성

월간여성 1·2월 통권337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④ 신년사

올 한해, 여성발전을 위한 모든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이연숙

⑥ 여성관련통계

남녀 취학률

⑧ 특집/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여성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② 근로여성고발창구 운영보고서

비정규직 여성들, 임금체불사례 늘어

③ 회원단체를 찾아서

중앙부인회

⑤ 해외여성통신

인도차이나 3국, 여성 경제활동 지원키로/이영남

⑥ 초점

남녀차별 고임선발고사 커트라인 재조정되기까지의 과정

⑦ 여성학 지상감작

농촌여성의 현황/한정자

⑧ 여성계 동향/이구경

⑨ 협의회 소식

⑩ 우리들의 광장



이연숙 (본회 회장)

올 한해, 여성발전을 위한 모든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1996년은 여협이 앞장서서 여성연대의 폭을 넓히고 정책결정과 수행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보화사회에서의 여성지도력 제고, 사회변화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의 변형추적, 여성의 권리를 인권으로 조명하는 시각도입, 여러가지 차별철폐와 사회참여 문제 등을 쟁거야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지난 한해가 일반적으로는 유례없이 사고많은 해로 기억되는 것과 달리 여성계는 가장 큰 변화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한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북경에서 지난 9월에 열렸던 UN의 제4차 세계 여성대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여사가 참석하고 600여명의 여성지도자들이 각 분야에서 활약한 것과 그에 걸맞는 보도진의 활동으로 참가하지 않은 한국인 모두에게 북경의 열기와 대회개최의 의미가 전해진 것은 참으로 여성계에 큰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쾌거였습니다. 북경대회의 열기를 이어서 10월 12일에 전국여성지도자 3500여명이 모여 진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주장한 것과 김영삼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10월 11일에 확정보고된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10대 과제" 실천의지를 확실하게 재확인 해준 것은 한국 여성운동사에 중요한 발전계기로 길이 남을 큰 획이 될 것입니다.

여성계의 신중한 입법과정에 관한 요청이 있었으나 진행상 지난해말 급하게 만들어진 여성 기본법도 앞으로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완이 되고 계속되는 여성계의 요청을 반영시켜 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확정시킨다면 선진국을 앞설 수 있는 입법활동으로 그 또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기억될 일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여성단체들의 연대활동은 세계적으로 다른 여성계가 하기힘든 일을 해내어 외국여성지도자들의 부러움을 끌어냈습니다. 북경여성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96개단체의 연대로 한국여성계의 결속과 추진력을 결집한 것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할당제 추진을 위해 68개단체가 똘똘뭉쳐 지방자치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제를 없애고 광역의회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그전 선거에 비해 두배가 넘는 여성의 당선 실적을 올린 것은 여성지도자들의 사기를 드높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확중에도 제가 기억하고 싶은 가장 큰 성과는 34개 회원단체로 성장한 협의회와 믿음직한 모습이며 외형적인 성장못지않게 내실있는 변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회원단체 하나하나의 괄목할만한 발전입니다. 또한 협동회원으로 지방의 여협이 참가하는 원년을 이룩해 명실공히 전국의 여성조직이 큰힘으로 집약하여 우리의 목표인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와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협의회 임원과 이사직을 맡으신 각 단체의 회장간에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자매애와 결집력이 속도를 더해가며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체험한 가장 큰 "복"이었다고 기억하며 일사불란하게 전문적으로 사업처리능력을 길러가며 힘든일, 궂은일을 마다않고 전문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확인하고 보람을 심어가는 사무국 직원들의 모습은 저에게 계속 용기를 돋워주는 활력소로 작용합니다.

저는 1996년 한해를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여성계의 변화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4월 11일에 문민정부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던 대통령과 선량들이 잘못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표만이라도 똑바로 행사되는 선거를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열심히 독려해 왔으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세계적 최하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여성후보가 적으면 차선택으로 여성정책을 앞장서 이끌어줄 남성을 찾아 국회로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법을 바꾸고 정책을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에게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여성발전은 곧 사회발전이고 여성참여는 정치발전이라고 믿습니다. 후보의 정책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장 여성을 존중하는 선량을 국회로 보내는 일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올해도 할당제 여성연대는 더욱더 힘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여성을 위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8개항목에 대한 실천사항을 지난 연말에 점검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야가 약속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일일이 지적해서 임기중에 완벽하게 실천되도록 여성계가 힘을 합칠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촉진을 위한 정부의 10대 과제는 그들이 약속대로 실천에 옮겨지도록 독려하고 점검하여 잘된 일은 칭찬과 감사하면서 사회발전과 세계화에 여성계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정계 그리고 대통령의 노력은 곧바로 여성계가 바라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말이나 구호로서가 아니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진지한 협력과 정책의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금세기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거리-환경파괴, 부정부패의 만연, 그리고 폭력의 일상화-를 해결하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성의 환경치유력과 부정부패에 맞서는 의연함, 그리고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인명을 존중하는 모성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회에 그늘진 구석구석의 인권에 걸리는 모든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인, 빈곤문제는 여성에게 가장 무겁게 달려들입니다. 평균수명은 길고 경제력은 보다약한 여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묶어서 1996년 열두달은 여협이 앞장서서 여성연대의 폭을 넓히고 정책결정과 수행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보화사회에서의 여성지도력 제고, 사회변화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의 변형추적, 여성의 권리를 인권으로 조명하는 시각도입, 여성어린이와 여성젊은이 그리고 여성노인의 여러가지 차별철폐와 사회참여문제 등을 쟁거야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여성지도자 여러분과 여협임원, 이사, 회원, 직원 모두의 도움과 사랑을 바탕으로 전체 사회지도층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많은 발전을 향하여 힘찬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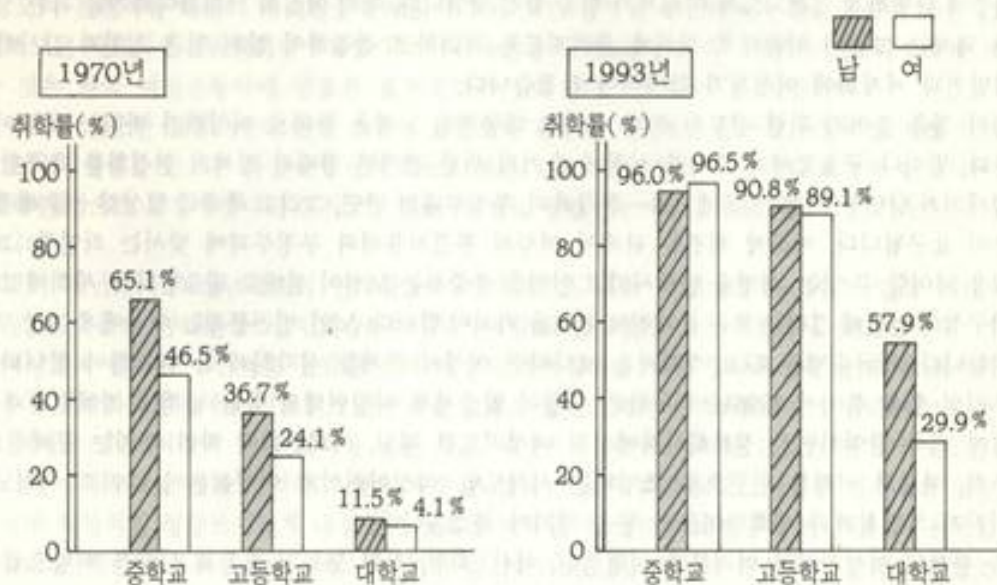
남녀 취학률

우리나라의 남녀 취학률을 살펴보면 국민학교의 취학률은 100%로 1970년 이래 남녀의 차이가 없으며, 남녀격차가 심하던 중학교 진학율도 계속 증가하여 1993년에는 남녀공히 99.9%에 달한다.

또한 여자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1993년 89.1%로 1970년의 24.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남녀격차도 격감하여 1.7%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대학교 취학률은 여자와 남자가 각각 29.9%, 57.9%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인다.

이와같이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형식적 교육에 있어서는 남녀평등이 실현되었지만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녀 격차가 크다.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94.



특집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여성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33.4%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48%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주로 여학생의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이 증가한데 기인하였다는 지적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여학생의 증가는 급속히 진행되어 1965년도 여학생의 구성비가 20%에 불과하였으나 1986년부터 남학생의 수를 앞지르기 시작하여 1994년 현재에는 전체 실업계 고교생중 여학생의 비율이 52.7%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중에서도 상고의 여학생 비율은 81.2%나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계와 상업계가 통합되어 있는 실업고와 종합고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공고에서의 여학생 비율이 6.6%로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1990년대 들어서 여자 공고와 남녀공학 공고가 잇달아 신설되고 있어 공업계열로의 여학생 진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여학생들이 상고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왜냐하면 상고출신들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가 단순 사무직에 한정되고 있는데, 이들 직종은 임금도 낮고 승진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상고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종에 적합한 여성들을 배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보사회화됨에 따라 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상고에서 사무자동화와 정보산업화에 필요한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면 상고출신 여학생들의 취업전망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2. 여성을 위한 직업의식 교육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의식교육은 바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의 직업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다양한 직업세계에의 도전 의식을 갖게 하고 남녀가 동등하다는 의식을 갖게 하며, 평생 직업인으로서의 윤리관을 확립시켜 주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여성관으로부터 탈피하여 근로자로서의 여성의 권리와 책임을 일깨워주기 위한 노동관련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심의 보호조치들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부당한 성차별이나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들도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직업의식 교육을 보면, 인사하기, 전화받기 등 사내예절에 국한되어 있어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상고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본 결과 여학생을 직업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 규정함으로써 평생직업인이 아닌 결혼전 단순 임시노동자로 길러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외모는 여학생들의 취업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학교측은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인식에 동의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졸업생을 위한 계속 교육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이 중학교 과정에서의 성적에 근거하여 선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다.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실업계 고교 전체 졸업예정자의 30.5%가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졸업자의 15.1%가 졸업 후에 진학을 하며, 여학생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못미치지만 졸업자의 23.9%가 진학을 희망하고 졸업자의 12.6%가 실제로 당해년도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1994). 이와 같이 실업계 학생들의 진학 열망은 높으나 직업기술 교육의 계속교육 체계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의 실업계 고교 진학은 부진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전문대학이 중견 기술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적인 직업기술 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교와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계 고교 졸업자가 전문대학의 동계학과에 진학할 경우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계 고교 졸업생과 동일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어 불리하다고 한다. 그나마 남학생이 대다수인 공고의 경우에는 동계 진학 범위가 넓어 계속교육 기회를 획득하는데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학생이 집중되어 있는 상고의 경우에는 동계 진학 범위가 상경계열에 국한되는데 전문대학에는 상경계열의 학과가 많지 않아 이러한 계속교육을 위한 혜택이 여학생들에게는 별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는 학력에 따른 대우의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력차이가 사라지기 전에는 실업계 고교생들의 진학에 대한 열망은 지속될 것이며 우수한 학생들은 실업계 고교로의 진학을 기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졸업생에 대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가 시급히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III.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결과 분석

1. 조사연구방법

본 질문지 조사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여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집단은 실업계 고등학교 중 상업계와 공업계 여자고등학교 및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여학생 중에서 학교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한 2학년생으로 하였으며, 교사는 남녀를 모두 포함하여 여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남녀공학의 경우에는 여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만 한정하였다. 표집방법은 다단계로 층화표집법과 집락표집법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표집된 5개 학교에서 각각 여

학생 100명, 교사 30명씩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먼저 학교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후 2학년 중 두개 학급을 임의로 정하여 학급단위로 집단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사들에게는 질문지를 맡긴 후 다음날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 학교의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져 모두 1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성역할 정체감 척도는 Bem이 개발한 BSRI(Bem's Sex Role Inventory)를 박선영(1985)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재는 총 34개의 문항을 5점 척도화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편집과 부호화과정을 거치면서 불성실하게 미완성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난 후 학생 462부, 교사 14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은 SPSS PC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빈도분포분석, 교차표 분석, 변량분석 등의 분석기법이 사용되었다.

2.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에 응답한 여학생 집단의 특성을 보면 계열별로 상업고가 64.5%, 공업고가 35.5%이었으며, 여자 고등학교의 학생이 64.9%, 남녀공학의 학생이 35.1%이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면 중간정도이다가 75.9%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못사는 편이다가 15.8%, 비교적 잘사는 편이다가 6.8% 등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현재 취업여부를 보면 전일제 근무를 하는 봉급생활자가 23.1%, 자영업자가 23.3%, 시간제 근무자가 6.6%로 취업한 어머니의 비율이 53.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사 집단의 특성을 보면 계열별로 상업고의 교사가 79.6%, 공업고의 교사는 20.4%이었으며, 여자 고등학교의 교사가 57.8%, 남녀공학의 교사가 42.2%였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45.6%, 여자교사가 54.4%로 여성이 약간 더 많았으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전문교과의

경우가 35.4%, 보통교과의 경우가 64.6%로 보통교과목 담당교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는 양쪽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예컨대 일반영어도 가르치고 상업영어도 가르치는 경우들을 보통교과목 담당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교직예의 재직기간은 남자교사가 평균 15년, 여자교사가 13년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평균 재직기간은 남자교사가 8.4년, 여자교사가 7.6년으로 나타났다.

3. 분석결과

(1)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현재 학교의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여부를 모두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각기 5점 척도로 측정(만족여부를 1점~5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3점을 중심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교의 교육여건에 대하여 약간 불만이 편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보다는 학생들의 불만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하위영역별로 보면 학생들은 전문교과와 관련된 학교시설(실습실 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보통교과(국·영·수 등)의 수업내용에 대

한 불만과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시간배정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고 교사들의 수업방법에 대해서도 불만이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태도에 대해 불만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저그렇다는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시간배정 및 전문교과의 수업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만족인 편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교과목 시간 배정이나 보통교과의 수업내용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은 많은 학생들이 졸업후 취업보다는 진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를 질문한 결과 취업이 72.5%, 진학이 23.8%로 나타나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1/4 정도나 되는 셈이다. 이들 진학 희망생들에게 진학하려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33.7%), '대학을 나와야 인정을 받으므로'(27.9%), '더 배우고 싶어서'(26.0%)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진학희망생의 34.9%는 진학을 위해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 영어, 수학 등 보통교과목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학희망 현상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들 진학희망자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등

제도적 방안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교과목에 대한 불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보통교과목과 전문교과목에 대하여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도록 한 결과 학생들은 보통교과목의 단위수를 늘리고 내용을 더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으나, 교사들은 보통교과목의 내용을 실업계 고등학교 별도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내용의 교육을 해야 하며 단위수에 맞추어 보통교과목의 내용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전문교과목에 대하여 바라는 점은 교사나 학생이나 모두 실천위주의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최신의 정보를 갖고 최신의 내용을 가르치도록 배려가 요청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교사들은 전문교과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으며, 학생들은 실습시설을 개선하고 자세히 그리고 철저히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한편 교사들에게 학교의 교육방침에 대하여 바라는 점을 적도록 한 결과 실무나 사회실정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실업계 교육정책의 비일관성을 지적하면서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과 전인교육을 위한 시간배정 내지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다음으로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표 2 참조), 교사들은 대체로 도움이 된다(57.1%)고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학생들은 그저 그렇다(33.3%)는 응답과 대체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30.7%)이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28.1%)보다 약간 더 많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상업계와 공업계로 나누어 5점 척도 측정(1점~5점으로 도움여부를 측정하여 3점을 중심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도움이 안되는 것을 의미함)한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표 3 참조) 교사와 학생 모두에 있어서 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 공업계 고등학교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이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보다 덜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첨단시설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시설미비나 첨단정보의 부족이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2) 실업고 직업교육이 직장생활에의 도움 여부에 대한 기대
명, (%)

구 분	교 사	학 생
전혀 도움안됨	3 (2.0)	20 (4.4)
대체로 도움안됨	9 (6.1)	141 (30.7)
그저 그렇	36 (24.5)	153 (33.3)
대체로 도움	84 (57.1)	129 (28.1)
대단히 도움	15 (10.2)	16 (3.5)
계	147 (100.0)	459 (100.0)

(표 3) 계열별 직업교육이 직장생활에의 도움여부에 대한 의견
(평균점수)

계 열 별	교 사	학 생
상 업 계	3.812	3.054
공 업 계	3.133	2.778
전 체	3.674	2.956
	(p<.001)	(p<.01)

이러한 학교교육의 효율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현재 학교공부 외에 학원수강이나 과외 교습을 받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21.8%의 학생이 학원수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복수응답 가능), 학원 수강생의 54.6%가 컴퓨터를 수강하고 있다고 하여 가장 많았으며, 영어, 수학, 과학의 보통교과목 수강생이 37.1%,

(표 1)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평균점수)

내 용	학 생	학교간 차이검증	학 생	학교간 차이검증
보통/전문교과의 시간배정	3.340	n. s	2.764	n. s
보통교과 수업내용	3.425	p<.001	3.079	p<.001
전문교과 수업내용	3.198	n. s	2.913	p<.05
교사들의 수업방법	3.349	p<.001		
학생들의 수업태도			3.401	p<.001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	3.290	p<.001	3.021	p<.001
전문교과 관련된 학교시설	3.502	p<.001	3.401	p<.001

영어회화나 일어 회화의 어학교육이 13.4%, 그 외에 피아노, 미술, 서예 등 예능계통이 6.2%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원수강의 주요목적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진학을 위해(21.8%), 학교공부가 부족하여(11.5%), 인문계만큼 해야 하므로(1.1%) 등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려 학원수강을 하는 경우가 34.4%나 되는 셈이다. 그 다음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13.8%,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가 6.9%로 나타났으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가 9.2%로 나타났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수강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하여 꼭 획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67.5%의 학생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주로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부기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워드프로세서와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은 컴퓨터와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자격증 획득을 위한 학교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컴퓨터학원 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의 전문교육이 좀 더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되고 첨단시설을 갖춘다면 학생들의 학원수강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실기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최근 교육개혁위원회가 건의안으로 내

〈표 4〉 실업계 고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

의견	명, (%)	
	인문고와 실업고간의 교류	진학반과 취업반의 융합
매우 반대한다	10 (6.9)	16 (11.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43 (29.7)	38 (27.0)
그저 그렇다	27 (18.6)	32 (22.7)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54 (37.2)	48 (34.0)
매우 찬성한다	11 (7.6)	7 (5.0)
계	145 (100.0)	141 (100.0)

놓은 실업계 고교 개혁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질문하였는데(표4 참조), 먼저 진학과 취업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인문고와 실업고 간의 학생교류가 가능한 제도'의 실시에 대한 의견을 보면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가 37.2%로 가장 많았으나,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가 29.7%나 되어 찬반의견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찬성쪽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 제도가 실시된다면 인문고의 취업반과 실업고의 진학반 학생들에게는 이중 공부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학생들의 교류에 따른 학교운영의 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한 학교내에 진학반과 취업반을 함께 운영하는 '진학반과 취업반의 통합고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보면,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가 27.0%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11.3%나 되는 반면에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0%에 불과해 반대의견은 38.3%, 찬성의견은 39.0%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통합고의 형태보다는 인문고와 실업고 간에 학생교류가 가능한 제도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실업계 고교를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 성역할 정체감과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인식

성역할 정체감 척도는 개인의 남성성향과 여성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성을 나타내는 행동사 17개와 남성성을 나타내는 행동사 17개를 각각 점수화한 결과를 보면(표5 참조), 전반적으로 학생들 보다 교사의 점수가 높아 교사들의 여성성향과 남성성향이 학생들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여성성 점수는 57.40점, 남성성 점수는 51.45점인 반면 여교사의 여성성 점수는 60.99, 남성성 점수는 54.62점으로 평균 3점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교사의 여성성 점수는 58.37점, 남성성 점수는 59.25점으로 남성성 점수 뿐만 아니라 여성성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인 여학생과 여교사는 여성성향이 남성성향보다 더 발달되어 있으나 남성인 남교사들은 여성성향, 남성성향이 모두 발달하여 양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Bem의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인 여성성향이나

남성성향의 성격보다는 양성성향의 성격이 창조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하므로 학생들의 남성성향을 발달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졸업 후 사회진출시 사회적응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결단력이 있고 독립적이며, 분석적이고 체계적이며, 박력있고, 적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특별활동시간이나 수업시간을 통해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분석에서는 중앙값 분리법에 의해 양성성향집단, 남성성향집단, 여성성향집단, 그리고 미분화 집단으로 나누었다(여학생의 중앙값은 여성성 점수가 58점, 남성성 점수가 51점이었으며 교사집단의 중앙값은 여성성 점수가 59점, 남성성 점수가 58점이었다.)

여성이 취업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표6 참조)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은 매우

〈표 5〉 성역할 척도상의 평균 점수

구분	학 생	평균점수, (표준편차)	
		여 교 사	남 교 사
여성성 점수	57.40 (6.92)	60.99 (6.67)	58.37 (8.09)
남성성 점수	51.45 (8.55)	54.62 (8.75)	59.25 (9.71)

* 여교사와 남교사간의 평균 차이는 여성성 점수는 $p<.05$ 수준에서, 남성성 점수는 $p<.01$ 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표 6〉 여성의 결혼과 직장생활 병행에 대한 의견

의견	명, (%)		
	학 생	여 교 사	남 교 사
매우 반대한다	5 (1.1)	-	2 (3.1)
대체로 반대한다	23 (5.0)	3 (3.8)	13 (20.0)
그저 그렇다	34 (7.4)	10 (12.7)	18 (27.7)
대체로 찬성한다	217 (47.2)	54 (68.4)	30 (46.2)
매우 찬성한다	181 (39.3)	12 (15.2)	2 (3.1)
계	460 (100.0)	79 (100.0)	65 (100.0)

* 여교사와 남교사 분포의 차이 검증결과 Chi squares=23.396($p<.001$)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찬성한다는 비율이 39.3%, 대체로 찬성한다가 47.2%로 결혼과 직장생활의 병행에 무려 86.5%의 학생이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은 이보다 찬성하는 정도가 조금 낮으며 특히 남교사와 여교사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생집단과 교사집단간의 차이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교사들은 여성의 결혼과 직장생활의 병행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가 15.2%, 대체로 찬성한다가 68.4%로 모두 83.6%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에 남교사들은 매우 찬성한다는 3.1%에 불과하고, 대체로 찬성한다도 46.2%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과반수가 못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반대한다는 비율이 20.0%, 매우 반대한다가 3.1%로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1/4 정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의 보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여성의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의 병행에 대한 의견을 앞서 분류한 성역할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교사집단에서는 성역할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표7 참조). 즉 남성성향의 학생들은 결혼과 직장생활의 병행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이 49.5%로 가장 많고 양성성향의 학생들은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이 44.1%,

대체로 찬성한다가 46.1%로 비슷한 비율 분포를 보인 반면, 여성성향의 학생들과 미분화 학생들은 모두 대체로 찬성한다는 비율은 각각 52.8%, 55.7%로 과반수가 되면서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은 약 30% 정도로 찬성하는 정도가 다른 두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검증에서도 성역할 정체감이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인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여성성향 뿐만 아니라 남성성향도 발달시켜 양성적인 인간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직업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는 여성들이 결혼 후에 취업을 할 경우 언제까지 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표8 참조), 여성(학생과 여교사)은 자녀를 낳는 동안 쉬었다가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남성(남교사)은 첫자녀를 임신/출산하기 전까지만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교사들은 취업을 안하거나 결혼전까지만, 또는 첫자녀 임신/출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2.9%나 되지만 여교사들은 불과 6.3%였으며, 반면에 자녀를 낳는 동안 잠시 쉬거나 또는 자녀출산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남교사는 35.8

%이지만 여교사는 70.1%로 거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이 취업을 안하거나 결혼전, 또는 첫자녀 임신/출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13.9%인 반면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51.8%로 여교사를 보다는 비율이 낮지만 남교사 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교사들의 경우 이미 취업활동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까지 일한다는 직업의식이 학생들보다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취업연한에 대한 의견을 성역할 유형과 교차분석해 본 결과, 교사집단에서는 성역할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생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9 참조). 즉 자녀출산에 관계없이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남성성향의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았으며(25.0%), 자녀를 낳는 동안 쉬었다가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양성성향의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았다(40.2%). 반면에 취업을 안하거나 결혼 또는 첫자녀 임신/출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여성성향의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7.9%),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직업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자유롭게 적도록 한 결과 교사들에게서는 23종류의 직업이 등장한 반면 학생들에게서는 모두 43종류의 직업이 등장하여 훨씬 다양하게 나타났다. 직업 선호도 순위를 보면 교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인 교직이 여성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한 사람이 55.8%로 매우 집중되어 있었다(표10 참조). 그 다음으로 사무직(10.9%), 디자이너(3.9%)의 순이었으며, 이러한 직업 선호 순위는 학생들에게서도 같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를 지적한 비율이 31.4%로 교사집단에 비해 낮으며 다양한 직업을 비교적 고르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집단에서는 공무원과 간호사(3.1%)가 공동 4위로 나타난 반면 학생집단에서는 은행원(8.6%)이 4위로, 그리고 직업이라고 볼 수 없는 주부 또는 어머니(4.8%)가 5위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가장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적도록 한 결과 무려 61종류의 직업이 등장하여 요즘 청소년들의 다양화된 직업 선호경향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은 사무직(14.1%), 교사(12.7%), 전산관련직(7.9%), 디자이너(5.3%), 은행원(5.3%)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열거한

〈표 8〉 여성의 취업연한에 대한 의견

의견	명, (%)		
	학 생	여 교 사	남 교 사
취업을 안하는 것이 좋다	6 (13)	-	1 (15)
결혼하기 전까지만	7 (15)	1 (13)	5 (75)
첫자녀 임신/출산하기 전까지만	51 (111)	4 (50)	16 (239)
막내자녀를 낳을 때까지	3 (07)	-	2 (30)
자녀를 낳는 동안은 쉬었다가 정년까지	148 (321)	33 (413)	13 (194)
자녀출산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91 (197)	23 (288)	11 (164)
결혼후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113 (245)	5 (63)	14 (209)
기타	42 (91)	14 (175)	5 (75)
계	461(100.0)	80(100.0)	67(100.0)

* 여교사와 남교사 분포의 차이 검증 결과 Chi squares=33.436 (p<.001)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표 7〉 학생의 성역할 유형별 여성의 결혼과 직장생활 병행에 대한 의견

의견	명, (%)				
	양성 성향	남성 성향	여성 성향	미분화 성향	전체
매우 반대한다	-	28	11	08	12 (5)
대체로 반대한다	39	56	90	31	51 (22)
그저 그렇다	59	93	34	99	75 (32)
대체로 찬성한다	46.1	32.7	52.8	55.7	47.1(202)
매우 찬성한다	44.1	49.5	33.7	30.5	39.2(168)
계	100.0(102)	100.0(107)	100.0(89)	100.0(131)	100.0(429)

* Chi squares=25.929 (p<.05)

* 무응답이 33명임

데에는 들어 있지 않던 전산관련직이 등장한 점이 다른 거의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전산관련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조사대상자에 전산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공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정보산업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전산관련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결된 질문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적도록 한 결과 단지 16종류의 직업만이 등장하여 고졸 여성들에게 열려 있는 직업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장 취업이 쉬운 직업은 사무직(52.6%), 경리사원(17.6%)으로 학생들의 70% 가량이 실업고 졸업 후 일반사무직에 가장 진출하기 쉽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은행원(13.3%), 판매직(11.4%)의 순위였으며 이들 3가지 직업에 진출하기 쉽다는 학생이 거의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고졸 출신 여성들의 직업이 단순사무직의 하위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3)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취업을

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대부분 성차별, 학력차별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여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성차별, 학력차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고 졸업생의 채용선발기준, 임금격차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원할 때 직장에서 중요시하는 선발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고르도록 질문한 후, 첫번째로 중요시하는 선발기준에는 3점, 두번째 기준에는 2점, 세번째 기준에는 1점의 가중치를 주어 합산 점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학생의 경우에는 계열별로, 교사의 경우에는 성별로 분석하였다(표11 참조).

분석결과 공업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모두 선발기준으로 학교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외모, 자격증 유무, 성격의 순으로 중요시한다고 지적한 반면 상업고 학생들은 학교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자격증 유무, 외모, 성격의 순으로 중요시한다고 답하였다. 얼마전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취업추천을 의뢰한 기업체 중 키와 용모를 제한한 44개 업체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고졸 여성의 채용에 외모가 두번째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지적된 점은 성차별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학생들이나 교사들 모두 외모가 그만큼 취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날씬하고 예뻐야 한다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교사가 수업 시간이나 기타 시간에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말씀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는데, “암전해라, 상냥해라, 예뻐라, 날씬해라, 여자다워라” 등 전통적인 여성다움을 강조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5.7%나 되었으며 현모양처 등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한 경우는 11.7%로 나타났다. 즉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사회화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무려 3/4이나 되는 셈이다. 반면에 여성도 전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6.4%에 불과하였으며 여성이기 때문에 명칭하라는 등 성차별적인 말씀을 한다고 지적한 경우는 1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중에는 교사들이 일부러 의식적으로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을 학생들이 새겨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3/4이나 되는 학생들이 교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지적된 점은 성차별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학생들이나 교사들 모두 외모가 그만큼 취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날씬하고 예뻐야 한다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교사가 수업 시간이나 기타 시간에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말씀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는데, “암전해라, 상냥해라, 예뻐라, 날씬해라, 여자다워라” 등 전통적인 여성다움을 강조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5.7%나 되었으며 현모양처 등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한 경우는 11.7%로 나타났다. 즉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사회화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무려 3/4이나 되는 셈이다. 반면에 여성도 전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6.4%에 불과하였으며 여성이기 때문에 명칭하라는 등 성차별적인 말씀을 한다고 지적한 경우는 1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중에는 교사들이 일부러 의식적으로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을 학생들이 새겨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3/4이나 되는 학생들이 교

〈표 9〉 학생의 성역할 유형별 여성의 취업연한에 대한 의견

의견	양성 성향	남성 성향	여성 성향	미분화성향	전체
취업을 안하는 것이 좋다	-	28	22	0.8	14 (6)
결혼하기 전까지만	2.9	-	1.1	2.3	1.6 (7)
첫자녀 임신/출산하기 전까지만	8.8	13.0	14.6	9.2	11.2 (48)
막내자녀를 낳을 때까지	1.0	-	2.2	-	0.7 (3)
자녀를 낳는 동안은 쉬었다가 정년까지	40.2	28.7	32.6	30.5	32.8 (141)
자녀출산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13.7	25.0	19.1	19.8	19.5 (84)
결혼후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27.5	14.8	22.5	29.0	23.7 (102)
기타	5.9	15.7	5.6	8.4	9.1 (39)
계	100.0(102)	100.0(108)	100.0(89)	100.0(131)	100.0(430)

* Chi squares=33.525 (p<.05)

* 무응답이 32명임

〈표 10〉 직업 선호도 순위

집단	교사	학생
순위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
1 순위	교사 (55.8)	사무직 (52.6)
2 순위	사무직 (10.9)	경리사원 (17.6)
3 순위	디자이너 (3.9)	전산관련직 (7.9)
4 순위	공무원 (3.1)	은행원 (13.3)
5 순위	간호사 (3.1)	주부/어머니 (4.8)

〈표 11〉 실업고 여자 졸업생의 채용 선발기준에 대한 의견(점수화)

선발기준	학 생		교 사	
	상업고	공업고	여교사	남교사
학교성적	687점 (1)	321점 (1)	157점 (1)	138점 (1)
자격증 유무	360점 (2)	188점 (3)	84점 (3)	48점 (3)
외모	342점 (3)	211점 (2)	121점 (2)	100점 (2)
출신학교명	122점 (5)	45점 (5)	23점 (5)	15점
교사추천서	40점	26점	10점	19점 (5)
가정환경	18점	12점	17점	18점
인맥이나 연줄	7점	16점	3점	6점
성격	237점 (4)	139점 (4)	41점 (4)	43점 (4)

* 점수화를 첫번째 선발기준으로 지적한 것에 3점, 두번째 선발기준에 2점, 세번째 선발기준에 1점의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것으로, 점수 자체는 사례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속의 순위를 해석함.

사들이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을 강조한다고 지적한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특히 실업계 학생들은 곧바로 직업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여성다움 보다는 직업여성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신감 등 직업의식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사들에게 여자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점을 자유롭게 적도록 한 결과,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들이 전통적인 여성다움을 강조한다고 답한 경우가 48.0%,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경우가 8.8%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사회화시킨다는 응답이 56.8%로 가장 많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지적보다는 훨씬 적었다. 반면에 여성들도 전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여성들의 직업의식을 강화시켜주는 말을 자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4.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해 주로 말을 한다는 경우도 9.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여성다움도 강조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의식도 강화시키기는 하지만 아직도 과반수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전통적 성고정관념을 사회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

혀져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는 기업주측의 여사원에 대한 여성다움이나 외모(예뻐야 한다)면의 기대에 그대로 부응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남성 직원과 동등하게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 자신감, 창의력 등을 강화시켜 주는 직업의식 강화교육이 필요하며, 바로 직업의식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직업인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한발자욱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는 한국사회에서 취업할 때 성차별과 학력차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표 12 참조) 성차별 보다는 학력차별이 더 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차별의 정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매우 심하다는 19.2%, 대체로 심한 편이다가 59.8%로 성차별이 심하다는 반응이 거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매우 심하다는 18.4%, 대체로 심한 편이다가 61.9%로 학생들과 비슷하게 성차별이 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학력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매우 심하다는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학력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심한 편이다도 52.5%나 되어 90% 이상의 학생들이 학력차별이 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들의 경우에 학생들보다는 매우 심하다는 반응이 조금 낮아 22.6%로 나타났으나 대신 대체로 심한 편이다라는 반응은 68.5%로 이들 둘을 합하면 역시 90% 이상의 교사들이 학력차별이 심하다고 응답한 셈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력차별과 성차별 중 어느 것이 더 심한가를 비교해 본 결과(표 12의 평균점수 비교) 학력차별이 더 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분석을 위하여 매우 심하다는 1점, 전혀 없다는 5점으로 점수화한 후 평균을 구해 본 결과(점수가 낮을수록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성차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2.043점, 교사는 2.041점이었는데 반해 학력차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1.672점, 교사들이 1.877점으로 성차별 보다 더 차별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학생들이 학력차별에 대해 더 심하다고 반응한 점이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 사회의 학력차별 현상에 대해 열등한 위치에 있는 실업고 학생들이 과민반응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그만큼 학생들의 입장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학력차별 없는 사회, 성차별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성차별, 학력차별과 관련된 질문으로 실업고 여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하면 초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남자 고졸생, 전문대졸 남녀, 4년제 대졸 남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초봉을 비교하여 액수를 직접 적도록 질문하였다. 성과 학력에 따른 초봉액수의 평균을 구해 본 결과 학생들은 실업고 고졸여자는 49만4천원, 남자는 55만4천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대졸 여자는 61만2천원, 남자는 68만5천원, 4년제 대졸 여자는 67만3천원, 남자는 75만5천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실업고 고졸여자는 초봉으로 53만4천원, 남자는 64만5천원, 전문대졸 여자는 64만5천원, 남자는 69만6천원, 4년제 대졸여자는 73만원, 남자는 80만4천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답하였다. 즉 학생들보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임금 수준이 약 5만원 정도가 높았으나 교사들의 경우에는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높게 응답한 사례도 있었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처음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임금으로 낮게 답한 사례도 있어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자 응답내용을 고졸여자의 임금에 기준하여 표준화하여 비교하였다. 즉 실업고 고졸여자의 초봉을 100으로 하고 고졸남자, 전문대졸 남녀, 4년제 대졸 남녀의 임금을 환산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분석결과(표 13 참조), 학생들이 교사들보다 성차, 학력차를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고졸여자 임금을

〈표 12〉 한국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

차별의 정도	성 차 별		학 력 차 별	
	명, (%)		명, (%)	
	학 생	교 사	학 생	교 사
매우심하다	86 (19.2)	27 (18.4)	179 (40.1)	33 (22.6)
대체로 심한 편이다	268 (59.8)	91 (61.9)	234 (52.5)	100 (68.5)
그저 그렇다	79 (17.6)	25 (17.0)	28 (6.3)	11 (7.5)
대체로 없는 편이다	14 (3.1)	4 (2.7)	5 (1.1)	2 (1.4)
전혀 없는 편이다	1 (0.2)	-	-	-
계	448(100.0)	147(100.0)	446(100.0)	146(100.0)
평균점수	2.043점	2.041점	1.672점	1.877점

〈표 13〉 성별, 학력별 임금격차 (표준화 지수)

학 력 · 성	구 분	실업고 고졸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학 생	학 생	100	113.4	126.8	143.4	140.8	160.9
	교 사	100	111.1	122.9	132.7	139.5	154.3
생	상 업 고	100	112.1	121.6	136.8	132.3	150.4
	공 업 고	100	115.9	137.0	156.5	157.7	182.0
교 사	차이검증		p<.05	p<.001	p<.001	p<.001	p<.001
	상 업 고	100	110.8	119.8	130.8	135.7	152.0
사	공 업 고	100	112.4	135.3	140.2	155.0	163.5
	차이검증		n. s	p<.001	p<.05	p<.001	p<.05

100으로 보았을 때, 고졸남자는 113.4, 전문대졸 여자는 126.8, 남자는 143.4, 4년제 대졸여자는 140.8, 남자는 160.9로 보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남자는 자신들보다 1.6배나 더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교사들은 고졸여자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고졸남자는 111.1, 전문대졸 여자는 122.9, 남자는 132.7, 4년제 대졸여자는 139.5, 남자는 154.3으로 보고 있어 학생들 보다 학력별, 성별 임금차이를 조금 적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성별, 학력별 임금추정은 학교의 계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표13의 하단), 학생이나 교사나 공업고에 속해 있는 경우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학생의 경우를 보면, 공업고의 학생들은 상업고 학생들에 비해 임금 격차가 더 크다고 응답하였는데 4년제 대졸 남자의 임금만 보더라도 상고 학생들은 고졸여자의 1.5배라고 한 반면 공고학생들은 1.8배라고 하여 기술부문에서의 학력별 임금격차를 사무직 부문의 임금격차보다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교사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공고 교사들이 상고교사들보다 학력별 임금격차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상업계열의 경우 대부분 일반사무직에 취업하지만 공업계열의 경우에는 고졸출신은 기능직으로, 대졸출신은 기술자로서 사회적 대우가 상당히 다르다고 인식하는 데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고등학교 교장과의 면담에서 지적된 바와도 일맥상통하는데, 현재 실업계 고졸출신의 경우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주어지나 대졸출신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주어져 학력차별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학력차별이 제도적으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IV. 실업계 고교에 대한 사례연구

본 사례연구에 제시된 사례들은 질문지 조사에서

선정되었던 5개 학교 중 연구자가 직접 방문한 4개교 학교관계자(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와 직접 면접한 것이다. 면접질문의 내용은 전공별 학생수, 전공별 교사수, 수업배당, 전문과목을 위한 학교시설, 직업의식 관련 교육, 학생들의 취업률과 진학을, 실업계 학교 관련 정책에 관한 건의 내용 등이다. 학교관계자와의 면접은 질문지 조사 기간에 같이 병행되었으며, 면접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사와 학생들에게 실시된 본 질문지 조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해당 학교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받았으며 「학교교육계획서」를 받아 참조하였다.

(사례 1) M 전산여고

M 전산여고는 여학생을 위한 공업계 전산학교로 1991년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기존의 상업계 위주의 여고생 실업교육을 전산 관련분야로 전환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산 관련분야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 학교의 개교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가져온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공분야는 전산 직종뿐이고, 학생수는 한 학년당 8학급씩 416명이며, 전체교사의 수는 50명이다. 이 중에 전문교과와 관련하여서는 전산담당교사가 15명이고, 상업과 부기를 담당하는 교사가 각각 1명이다. 이 학교의 경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이수단위는 50대 50의 비율이고, 전문교과의 경우는 이론이 40%, 실습이 60%로 나뉘어져 있다. 전문교과를 위한 실습시설은 한 학년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한 실당 50세씩, 10개의 실습실을 갖고 있다. 전문교과와 관련하여 중점을 두는 것은 학생들이 단순한 컴퓨터의 사용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래머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과 내용에 있어서도 전문 프로그래머의 육성을 목표로 실습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등 전산관련 자격증 획득을 졸업 필수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초기의 적극적인

시설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실무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실습시설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산관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은 94년 현재 100%이고, 취업분야는 대기업, 증권사 및 각 은행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다른 실업계 학교와 마찬가지로 3학년 학생들은 대부분이 11월에 취업을 나가고 있으며, 직업의식 관련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은 취업 나가기 직전에 실시하는 10월 특강을 들 수 있다. 이 특강의 주요 내용은 직장예절과 전통예절 등이다. 직업의식 관련 교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화 시간이나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업의식을 고취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직업의식과 관련하여 특별히 학생들에게 하는 내용을 교감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제는 학생들도 결혼하기 전까지만 직장을 다닌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 평생 직장을 갖기 위해서 나는 '명렬여사원의 3대 조건'이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 하고 있다. 그 3대 조건은 프로정신, 자기계발, 자기홍보이다. 학생들 각자가 이 내용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은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 있으며, 어리고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졸업후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부딪치면서 이 말을 생각했으면 한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교과 내용, 수업시간의 교사의 태도 등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학생들이 잔소리로 여기는 혼화 시간의 혼화 내용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스럽다.

(사례 2) Y 여실

Y여실은 1993년 3월 상업과 5개반, 전산과 3개반, 디자인 2개반인 총 10개반으로 개교하여 95년 올

해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개교 직후 1993년 9월 상업과를 3개반으로 축소하고, 유아교육과 2개반을 신설하였다. 상업과를 축소한 것은 사회변화에 따라 상업과의 취업전망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여학생의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신설학교였기 때문에 빨리 학과를 전환할 수 있었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성의 취업 확대 등 현재의 사회변화에 따라 유아교육과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 학교의 유아교육과 설치의 실업계 학교에서의 전공학과 전환의 좋은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전문과목을 위한 학교시설로는 컴퓨터실 2개, 워드프로세서실 2개, 종합실습실 1개, 디자인실습실 2개, 유아교육실습실 2개, 타자실 등이 있다. 2학년의 수업배당은 보통교과 32단위, 전문교과 32단위이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과별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업과의 경우에는 교내 주산, 부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전산과의 경우에는 PC경진대회를, 디자인과의 경우에는 전시회를 열고 있고, 유아교육과의 경우 구연동화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 학생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실무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의욕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졸업생의 취업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명성이나 평판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으나 지속적인 학교의 교육투자와 사회변화에 맞는 신설학과의 설치 등을 추진하면 실업고 학생들의 취업전망이 어둡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 3) S 여상

S여상은 여자상업계 고등학교의 대명사로 불리울 만큼 많은 졸업생을 사회에 배출시킨 학교이다. 현재 한 학년당 720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해 있고, 전공분야는 상업경영과 4개반, 사무자동화와 4개반, 정

보충과 6개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학교의 교훈은 성실, 근면이며,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다른 상업계 학교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다. 전공별 교사수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각각 50%씩을 차지하고 있고, 수업배당은 현 2학년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교과가 40단위이고, 전문교과가 30단위로 되어 있다. 취업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졸업생과 재학생을 포함하여 매년 900여명이 대학수능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대학교육에 대하여 큰 열망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수백명이 대학진학을 위해 수능시험을 보는 것은 현재의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자신의 전공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미비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계속 교육"의 실시를 교육방침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실업계 교육을 지금의 일반 인문계 고교의 틀에 맞추어 3년제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3년제 이외에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수준을 합쳐 놓은 5년제 전문학교의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입시과목도 국·영·수 위주가 아니라 동일 계열의 전공과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고생들의 사회진출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여중생들을 전산 고교나 공업계 고교로 진학시켜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 교장 선생님은 상업계 교육을 변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책은 상업계 보다는 공업계를 우선으로 지원해 왔다. 상업 자체는 오늘날의 경제활동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문학교 혹은 일본의 경우처럼 전문고등학교 같은 개념의 5년제 실업전문학교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학교 졸업생의 경우 실무능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취득에도 매우 유리하다. 5년제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업계 진학 학생들의 학력이 점점 낮아

지고, 대학 진학을 교육의 최고 목표로 생각하는 현재의 풍토에서 실업계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리고 상업계 교육내용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상업계 학교교육의 내용이 여전히 과거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여전히 대학진학의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직업의식 관련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실업계 고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시간을 할당하지는 않고 있으며, 3학년 수업에 있는 상업실습 시간을 이용하거나 수시로 교장, 교감 선생님의 훈화나 실과 담당선생님의 지도에 의존하고 있다.

(사례 4) D 상고

D상고는 1947년 남자 공립상업고등학교로 인가되었다가 1983년에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상과와 정보처리과로 나뉘어졌다. 1992년에는 남녀 각각 1반씩 상업디자인과가 신설되었다. 현재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의 수는 상업과의 경우 남학생 7학급(324명), 여학생 2학급(102명)이고, 정보처리과의 경우 남학생 4학급(193명), 여학생 2학급(103명)이다. 상업디자인과의 경우 남학생 1학급(44명), 여학생 1학급(51명)으로 2학년 남학생 총수는 12학급 561명, 여학생 총수는 5학급 256명이다. 교사의 수는 전체 113명 중 전문교사의 수가 40명으로 35.4%이다. 다른 학교와는 달리 이 학교에서는 공채대비 자율학습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서관 상설 개방이나 순회교사의 실시 등 학력차별 철폐라는 사회적 변화에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실력 배양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기업이 공채를 실시할 경우, 여학생의 취업 보다는 남학생의 취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채 대비의 각종 지원들은 남학생에 대한 배려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직업윤리 교육에 있어서는 여학교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D인의 예절과 교양"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생활예절과 직장예절을 가

르치고 있다. 이 직업윤리 교육에 있어서의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녀평등적인 관점에서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여학생에 대하여 많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의 경우 비교적 취업이 잘되는 정보처리학과나 상업디자인과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취업은 잘되는 편이다. 지금까지는 취업에 있어서 추천이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능력에 따라 공채를 점차 확대할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학생은 주로 기업측의 요구에 따라서 취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학생의 취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4개 학교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볼 때,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대학진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교육풍토와 인문고 위주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실업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는 졸업생을 무조건 사회에 배출해 놓기 보다는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실업교육의 담당자인 일선 학교들은 실업고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스스로의 변화에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구태의연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수업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실험 실습기자재의 확보를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V.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제언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기술교육에 중점을 둬으로써 졸업후 기능인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적인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성적에 근거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교육목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는 시설 면에서 미비하고 상업계 고등학교는 새로이 도래하는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첨단 정보처리기술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진출하여도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학력차별에 의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제한되며 대우도 충분치 못하다고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기소침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게다가 실업계 여고생들은 성차별이라는 또하나의 제약에 의해 이중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취업을 하여도 하위단순직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으며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를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계속교육의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또한 직업인을 배출하는 기관인 실업계 고교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과 특히 여성의 직업의식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교육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하며 교육제도와 성차별적, 학력차별적인 사회(노동시장)의 분위기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교육제도, 노동시장의 세 차원에서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1.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실업계 고등학교는 졸업 후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주 목표이므로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은 실질적인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구별되는 교육내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보통교과의 수를 줄이고 보통교과 내용도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는 총 이수단위의 40~60%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보통교과를 다루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교과목의 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와 같기 때문에 할애되는 시간은 절반이지만 다루는 내용은 같은 셈이므로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보통교과는 과목수를 통폐합하여 절반으로 줄이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결과 학생들의 보통교과(국·영·수 등)의 단위수를 늘리고 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주문은 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의견으로서 이들의 요구에 동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문제는 중학교 과정에서의 진로선택이 잘못된데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목표에 적합한 보통교과의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입시위주의 내용에서 탈피하여 교양인 양성을 위한 내용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2) 전문교과의 내용을 좀더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실습위주로 바꾸고 전문교과 교사들에 의해 교과서를 새로이 집필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실전 위주의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원하고 있었으며, 주산이나 부기 등의 기술보다는 컴퓨터 등 첨단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기술습득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는 첨단과학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전문교과담당 교사들은 현재의 전문교과목 교과서들이 주로 대학의 이론교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실업계 고교교사들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는 교과서의 집필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3)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가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것으로 바뀌어야 하며

학교의 수업내용도 자격증 획득과 연관되어야 한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우선과제는 자격증 취득이라고 한다. 이는 졸업 후 취업하는데 선발조건이 되기 때문이며, 기업체측도 자격증이 있는 학생은 그만큼 학교생활에 성실했던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학교의 컴퓨터 기종이 오래된 것이어서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학원수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어 학교 수업내용과 자격증 시험과의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첨단정보기술과 관련된 자격증 획득을 위한 실질적인 학교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실업고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 여학생을 위한 직업의식 강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졸업하기 전 직장에서의 예의범절, 전화받기 등의 단순 하위 사무직 여성으로서의 예절에 대한 직업의식 교육이 일회성 특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고 졸업생들은 곧바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와 책임, 의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3과정에서는 보통교과목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여학생들을 위해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공한 직업여성의 사례발표나 직장에서의 성희롱 등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안, 직장동료 및 상사와의 원만한 인간관계 기법, 직업인으로서의 윤리 등 다양한 내용의 직업의식 강화교육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5)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의 진로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이 주로 성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고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문계 고교에 취업반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실업계 고교에 진학반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관행인 학력차별이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계 고교에서의 학과 선택을 입학 때 결정하기 보다는 1년 정도의 탐색기기를 두고서 2학년에 선택하는 것도 적응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현행 교육제도상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비단 실업계 고교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교의 문제와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기에서는 실업계 고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계속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들 전문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진학할 경우 우선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 현재 전문대학의 동일계열에 진학할 경우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계 고교 졸업생과 동일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어 불리한 실정이다. 전문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사업체 부설대학 등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실업계 고교생들에 대한 우대조치를 제도화하여 실업계 고교생들의 계속교육에 대한 욕구를 기술연마와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야간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여 취업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실업계 고등학교를 점차 5년제 내지 4년제 전문학교로 전환하여 다양한 기능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특화하여야 한다. 현재 3년제의 교육과정으로는 일반교양도 부족하고 전문기술도 부족한

미완성의 직업인을 양성해 내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4~5년제의 전문학교를 많이 설립하여 전문기술 분야의 교육을 특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분야가 디자이너, 광고 카피라이터, CAD 디자이너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교육연한을 늘림으로써 3년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는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계 고교생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으며 처음 1년과정은 학과 선택의 탐색기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취업희망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희망자의 교류를 인정함으로써 고등학교(또는 전문학교) 1년과정이 끝난 후 서로의 잘못된 진로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현재 상업고와 공업고의 구분을 없애고 실업고로 통합하면서 21세기에 전망이 밝은 직종의 다양한 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상업고는 주로 단순 하위사무직에 적합한 주산, 부기, 워드프로세서 등의 기능인 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나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사무자동화되면서 상고와 공고의 구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상업계와 공업계를 구분하지 말고 통합하여 컴퓨터 시설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학과를 설치하면 상호교류 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설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노동시장(사회)의 관행상 개선방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진출하는 곳은 노동시장이므로 노동시장의 학력차별적, 성차별적 관행들은 실업계 고교생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보다는 기능위주로 고용하도록 기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 몇몇 기업체에서 직원 채용시 학력철폐, 성차별 철폐를 주장하면서 개인의 능력위주의 선발기준을 마련한 경우가 있다. 언론에서는 이들 기업체의 신선한 시도를 널리 홍보하고, 학력차이나 성차이 보다는 개인 능력 차이가 우선시 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자격증을 갖춘 기능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실업고와 전문대, 4년제 대학의 격차를 없애고 누구나 능력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자격증 취득 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일례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의 경우 정보처리기능사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의 자격에 있어서와 같이 학력에 따라 자격증의 종류 및 급수가 결정된다. 전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고졸의 학력을 가진 응시자는 정보처리기능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기간을 몇 년 거친 후에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전산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실무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격증의 취득은 그 분야에 대한 실무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자격부여를 결정하는 것인데도 학력에 따라 자격증 취득 자격을 결정해 놓는 것은 오히려 학력선호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여성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평생취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녀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어려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즉 육아휴직제나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취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자녀를 낳는 동안은 쉬었다가 정년까지 일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벌써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녀양육 기간의 취업중단은 직업경력에 단절을 가져오기 쉬우며, 현재까지도 복직이 수월하지 않거나 더 낮은 직종으로만 재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중단 보다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4) 실업계 여자졸업생에 대한 기업체의 선발기준도 외모보다는 능력위주로 바뀌어야 하며 단순 사무직 보다는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무에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실업고(특히 상업고) 여자 졸업생에게는 타자나 경리, 단순 사무보조 등의 업무만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무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개인의 능력과 자격증에 따라 남성들의 분야로만 인식되고 있는 다양한 직무에 여성들을 배치함으로써 능력발휘의 기회를 준다면 직무 만족도도 높아지고 여성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 제시한 바와 같이 실업계 고교 자체의 교육과정과 전반적인 교육제도 그리고 노동시장내의 차별적 관행들이 함께 개선될 때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근로여성고발장구 운영보고서



I. 접수현황

1995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회 근로여성고발장구에 접수된 고발건수는 46건(재상당 제외)으로 고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내폭행 14건(30.4%), 임금체불 13건(28.3%), 부당해고 4건(8.7%), 부당대우 3건(6.5%), 기타 12건(26.1%)이었다. 직장내폭행은 물리적폭행이 6건, 성희롱이 8건이었고 임금체불에는 보험설계사의 피해와 용역회사의 임금체불 등이 새롭게 접수되었다. 기타사항의 산업재해는 많은 건수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상담에 전문성을 요하는 유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II. 유형별 접수 사례

1. 직장내 폭행

(사례1)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인의 동생은 22세로 여성은 본인 혼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장이 상

비정규직 여성들, 임금체불사례 늘어

(1995. 8. 1~12. 3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근로여성고발장구)

가내공업, 파트타임, 임시직의 소위 비정규직 여성들의 임금체불 피해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줄이려는 대책이 필요하다.

담인 동생에게 자주 만나자고 하며 회식자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여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어느날 "같이 여관에 가자"는 말을 해 다음날 사표를 내니까 "어디로 몸 팔러 가냐"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95. 8. 3)

(사례2) 상담인은 어느날 여직원 탈의실에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카메라의 방향을 바꿔 놔는데 다음날 보니 다시 원위치로 돌려져 있었다고 한다. 전선을 추적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모 이사의 방에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날 이사에게 사실을 보고하자 "강간당한것 보다 낫지 않나. 잊어버려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 문제의 임원은 처음에는 시설만 해 놓고 보지않았다고 하다가 여직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얼마전 분실한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 설치했다며 여직원들에게 혐의를 씌웠다. ('95. 8. 7)

(사례3) 모 그룹에 근무하는 상담인은 부사장에게 성추행을, 부장에게는 폭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아 직장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부사장은 상담인을 근무시간에 불러 겨냥하는 등의 성추행을 여러차례

시도했다. 부장이라는 사람은 여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지난 여름에는 휴가를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상담인은 회사에 나가는게 두려워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만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이 말려서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95. 10. 9)

(사례4) 직원이 12명인 L외국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인은 1주일전 상사들끼리 언성을 높혀 말다툼을 한 일이 있어 어색한 분위기에서 일하기가 거북했는데 그중 한 남자상사가 데이터를 잘못 뽑았다며 상담인에게 의자를 집어 던졌다. 상담인은 머리에 피멍이 들었고 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병원에 가보니 요추탈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이 있는 후 가해상사는 "때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만 하고 정식으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가해상사와 사장이 친구사이여서 징계가 어려울 것 같다.('95. 8. 8)

(사례5) 사립학교 교사인 상담인은 학생주임인 체육과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 상담인에게 부당한 일을 시켜 이에 항의하자 교무실에서 폭언과 함께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 학교측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가해선생에 대한 처벌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95. 10. 5)

2. 임금체불

(사례6) 상담인은 예전에 전자출판업무를 했었는데 아이때문에 퇴직을 하고 현재는 집에서 주문을 받아 편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래 기획사에서 계속 대금을 미루며 주지 않고 있다.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다.('95. 8. 1)

(사례7) 상담인은 용두동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K은행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90년 6월 입사하여 95년 8월에 퇴사하였는데 9월 22일 임금협상이 타결되었다. 퇴직금을 인상전 평균임금으로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소급분을 줄 수 없다고 한다.('95. 9. 25)

(사례8) 모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상담인은 10월 S생명으로 이직을 했다. 생명보험협회의 신고등 일체의 서류를 S생명에서 처리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었는데 알고보니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11월분 월급을 받지 못했다. 회사측에 항의했으나 어쩔수 없다고만 한다.('95. 12. 1)

(사례9) 역시 S생명 가락영업국에서 보험설계사로 2개월째 일하고 있는 상담인은 한달 일하고 나면 45만원의 교육비를 별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환산점(영업실적)이 높지 않라며 교육비를 지급치 않겠다는 말에 속은 느낌이 들었다.('95. 12. 20)

3. 부당해고

(사례10) X종합건설의 모델하우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상담인은 2월부터 6월까지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7월부터 정식직원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기대를 하였다. 상담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휴일에도 쉴 수 없었다. 어느날 책임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하루 휴가를 하였는데 7월 27일, 소장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 부장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무작정 그만두라고 하는걸 보니 정식직원이 되기전에 해고시키려는 의도인것 같다.('95. 8. 17)

(사례11) 상담인은 한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집에서 7년동안 일하고 있는데 운영권이 다른 보육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어느날 예배시간에 원장이 일괄사표를 내라는 통보를 하였다. 사유는 "운영자 교체로 인한 것"이었다. 상담인은 8월 8일자로 1급 보육교사가 되는데 이를 눈앞에 두고 퇴직해야 한다니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단 사직서를 받아놓고 선별하여 재취업시킨다고 한다.('95. 8. 1)

4. 부당대우

(사례12) L백화점의 수입골프의류 상점에서 파

견근무하고 있는 상담인은 최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재고 손실분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것이었다. 백화점의 경우에는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해서 다른 매장의 경우 1% 정도의 재고 손실은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해서 매장 직원들이 동시에 사표를 내기로 했다.('95. 10. 31)

5. 기타

(사례13) 상담인은 K공사 장성광업소의 전산실에서 10년간 일하다가 사망한 여성근로자의 친연녀이다. 사망한 C씨는 근무중 쓰러진 후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가던중 병원입구에서 다시 쓰러져 인공호흡을 한 후 숨졌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두개내 출혈(추정)이었다. C씨 가족들은 너무나 당황하여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소 건강했던 32세의 C씨는 사망하기 며칠전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한다. 상담인은 "보통 남자직원의 경우 사망했을 때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사망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동생의 경우에는 전산실에서 여자직원이 사망재해를 당한 사례가 없어 곤란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95. 10. 20. 재상담)

(사례14) 경북 상주의 X전자제품 조립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인은 업무중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에 가보니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2주정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일하고 있는데 오른쪽 귀가 점점 들리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받아도 완치율이 5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 산업재해 처리를 하고 싶는데 회사측에서는 소음이 그리 심하지 않고 그런 선행도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95. 11. 3)

- 직장내 폭행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유형

이다. 직장내 성희롱과 더불어 물리적 폭행도 계속 증가 추세인데 가해직원이 대부분 직장상사이므로 인해 여성근로자는 근무의욕도 잃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큰 충격을 받지만 가해 남자직원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폭행죄로 고소하면 된다고하지만 가벼운 외상으로 기소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같은 직장내의 동료들 고소한다면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직장내 폭행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의 감독과 사업주의 주의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은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동료와 상사에게 의논하고 그것이 계속될 경우 녹음, 일지기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만 한다. (사례3)의 상담인은 현재 다른 영업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례2)의 여직원은 가해 임원에게 사과를 받은 상태이다.

임금체불의 사례에서 가내공업, 파트타임, 임시직의 소위 비정규직 여성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줄이려는 대책이 필요하다.

기타의 유형으로 산업재해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현재 여성의 산업재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있지 않아 그 현황은 알 수 없지만 여성들의 직업이 다양화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여성산업재해에 대한 지원팀 구성과 상담을 전문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례13)의 경우 당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을 상대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사망과 업무수행의 인과 관계가 없다"하여 기각 당한 상태이다.

남녀고용평등 점검표

*다음은 지난해 본회에서 실시한 「직장 여성의 프로입문 강좌」를 마치고 수강했던 취업여성들과 함께 만든 남녀고용평등 지수 점검표이다. 유형별로 체크해 보면 자신이 속해 있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실태를 알 수 있다.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자율점검표를 참조하였음)

(1) 모집·채용

- ① 신입사원을 모집할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여성은 사무직이나 판매직 또는 업무보조 직종에 채용하고 관리직등에는 남성만 채용한다.()
- ③ 여성에게도 고용기회를 주지만 성별로 채용예정인원을 배정하여 여성의 고용기회를 제한한다.()
- ④ 학력과 경력이 같은 경우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직위에 모집, 채용한다.()
- ⑤ 여성에게만 연령에 제한을 두거나 남녀간의 연령제한의 차이가 너무 크다.()
예) 남자: 30세, 여자: 23세
- ⑥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조건(축탁, 시간제 등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 ⑦ 여성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외에 미혼·유모단정·키·체중 등의 신체 조건이나 미혼 조건등을 제시한다.()
- ⑧ 면접이나 구술시험에서 여성에 대해서만 특별한 질문을 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한다.()
- ⑨ 인턴사원의 대상자에 여성을 제한한다.()
- ⑩ 채용시 여성에 대해서만 배우자나 보호자의 취업동의서나 보증을 요구한다.()

(2)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 ① 여성의 임금을 학력과 직종, 직급, 경력등 공동된 조건의 남성보다 적게 지급한다.()
- ② 성별에 따라 다른 호봉표를 적용한다.()
- ③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호봉인정의 경우 그 가산정도가 군복무기간을 훨씬 상회하거나 가산호봉제도를 군복무면제자나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적용한다.()
- ④ 남성에게는 모두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여성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조건을 둔다.()
- ⑤ 가족수당·교육수당 등 생활보조적 금품의 지급이나 주택자금·대출 등의 사원복지제도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

(3) 교육·배치·승진

- 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 ② 관리자 양성교육과 같은 특정 교육과정에 대해 직종, 직급, 경력 요건이 같음에도 여성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한다.()
- ③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의 대상자 선발시 남성을 우선 선발하고 직종, 직급, 경력 요건이 동일함에도 여성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한다.()

- ④ 같은 조건으로 채용한 후 여성은 사무직이나 판매직에 배치하고 관리직에는 남성만 배치한다.()
- ⑤ 남성은 정기적으로 순환근무시키고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진 업무에 계속 근무하게 한다.()
- ⑥ 여성은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기준과 관계없이 해외근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 ⑦ 여성은 처음 정해진 업무에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승진이 제한된다.()
- ⑧ 여성도 승진할 수는 있으나 승진년한, 교육이수코스, 고가평정 등 승진 절차나 요건을 남성과 달리 불리하게 정한다.()
- ⑨ 여성은 남성과 달리 일정직급 이상으로는 승진할 수 없다.()
- ⑩ 코스별 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 여성의 동의없이 여성을 특정직군에 배치하거나 지원하도록 종용한다.()
- ⑪ 코스별 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 직무수행상이나 기업운영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전근가능성등을 직군구분의 중요요소를 설정하여 사실상 성별직군분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4) 정년·해고

- ① 직종, 직급등과 관계없이 여자는 53세, 남자는 58세 등으로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다.()
- ② 여성만이 근로하는 여성전용직종이 다른 직종의 정년에 비해 낮다.()
- ③ 여성의 경우 결혼·임신·출산과 함께 퇴직하도록 규정에 정해져 있거나 그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
- ④ 결혼 또는 출산을 이유로 지방발령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 ⑤ 사내 결혼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을 퇴직시킨다.()
- ⑥ 퇴직에 따른 조건(퇴직금이나 자녀입사등)에 남녀차이를 둔다.()
- ⑦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정리해고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을 그 대상으로 우선 퇴직시킨다.()

(5) 직장내 폭행

- ① 직장내에서 물리적인 폭행이 일어날 경우에도 기해직원을 처벌하지 않는다.()
- ② 직장내 성희롱을 항의하다가 전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있다.()
- ③ 직장내 성문화에 대해 사업주가 방관하거나 여성을 퇴사시키기 위해 직장내 폭행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





김취복 회장

중앙부인회

중앙부인회는 설립당시의 취지를 계승발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을 위한 기능교육사업, 사회적 지위향상, 영유아보육사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부인회는 1953년 5월 5일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 부산에서 송효선, 차윤신, 최영식, 이정화, 주한 미대사부인 Briggs 등의 여성 선각자들이 가장을 전쟁터로 보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여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소장하고 있던 재봉틀을 내놓고 양재 등의 기술을 가르치면서 창설되었는데, 이 일이 널리 알려지면서 UNKRA로부터 부산 동대신동에 회관을 기증받아 창립예배를 드리고 여성기능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1953년 휴전협정 후 정부 환도에 따라 서울로 돌아온 11월, 인현동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주한미 8군 PX, 반도아케이트 판매장을 대여받아 편물, 수공예품, 피복 등 회원들이 제작한 물품들을 전시 판매하여 전쟁 미망인들의 생활을 도와주었으며, 세계박람회에 수공예품을 출품, 한국의 수공예 제품의 아름다움과 우수함을 자랑하며 국위선양에 큰 몫을 하기도 했다.

1954년 8월 기독교 세계봉사회

의 도움으로 중구 필동에 본회 회관을 기증 받았고, 1956년 후원회인 선미회를 조직하여 본회가 본격적인 기능교육의 장으로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 자립을 할 수 있게 약 만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게 되었다. 동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1963년 현재의 보문동 회관으로 이전하였고, 1993년 숙원사업이었던 회관(지하1층, 지상 6층) 신축하였다.

중앙부인회는 설립당시의 취지

를 계승발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을 위한 기능교육사업, 사회적 지위향상, 영유아보육사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부인회의 조직은 김취복 회장과 20여명의 이사, 감사 2인의 체제로서, 특히 이사회는 본회 사업과 활동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5개의 분과위원회-재정, 보육사업 운영, 프로그램 운영, 조직관리, 국제협력분과-로 구성되어 중앙부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중앙부인회 주요사업 내용이다.

▲ 여성의 기능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기계자수교육, 패션디자인 교육, 우리옷 만들기, 손뜨개, 행사별 선물포장법등 여성이 영구적인 기능을 익혀 부업이나 자영업을 함으로써 경제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1996년도에는 타단체와 연계하여 불우한 여성들에게 기능교육을 습득케하여 그들이 불우한 여건을 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할 계획이다.

“여성 소규모사업 경영자 교육”은 1993년 본회에서 처음 개발하여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사업 경영에 뜻이 많은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주부 고용촉진 단기적응 훈련”은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연2회 실시하고 있는 강좌로써, 취업이 어려운 중고령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활력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여성들이 차원높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 생활영어회화 교육, 노래 바로부르기, 붓글씨 쓰기, 종이접기, 사진교실, 한문교육 등 다양한 교양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있다.

▲ 영유아 보육사업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탁아방과 영아 탁아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중앙부인회의 어린이집은 탁아개념보다는 전인적 교육개념을 도입한 보다 발전적인 시설로 설계되어 있을뿐 아니라, 아동들의 다양한 특기교육까지 본 어린이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각기 특기를 가진 교사들을 채용하여 교육하는 특징이 있다.



▲ 국제 친선 교류사업

국제협력분과에서는 96년도부터 연변 조선대학 여성연구소와 협력하여 조선족 여성들에게 중앙부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능교육을 연수시킴으로써, 그곳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편 1995년 11월에는 일본 히로시마 지방의 인노시마 교육위원회의 산하 여성단체 대표들이 중앙부인회를 방문하여 중앙부인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양국의 여성발전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활발히 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치매의 예방과 치매노인 간호교육, 불우여성돕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친 지부조직의 결성에 박차를 더하여 중앙부인회 및 사업의 광범위한 확장을 기하고 있다.

인도차이나 3국, 여성 경제활동 지원키로

이영남 (연합통신 외신국 차장)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정부 및 민간개발기구들은 지난해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설정된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열어 여성들의 문맹을 줄이고 여성들의 취업 및 이들에 대한 저리융자를 확대키로 결의했다.



팔레스타인 선거서 여성차별 논란

사상 처음 치러진 팔레스타인 자치선거에서 여성에 대한 정치적 차별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하게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워왔지만 막상 자치실행 단계에 이르러선 성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들은 그같은 주장의 근거로 88명을 뽑는 자치평의회 선거 입후보자 7백명 가운데 여성후보는 28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54%이지만 여성 입후보자의 비율은 4%에 그치고 있는 것. 이때문에 팔레스타인 과도행정당국(PNA)이 야당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선거에 성적 차별이 개입됐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상당수 가정에서 여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는 가질 겨를도 없이 아버지나 남편, 아들의 의견에 따라 그대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레스타인 선거관리위원회측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남녀차별 관행은 있을 수 없으며 선거는 철저히 민주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법상 자치평의회 선거 입후보자는 자치지역내 선거구에 등록된 30세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정당의 공천을 받든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단 무소속 입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의 0.5% 이상 서명을 받도록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여성 의석수가 30석이 넘지 않도록 한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의 오랜 정치적 동지였던 하난 아시라위 등 여권운동가들은 선거법에 여성의석 30석 보장조항이 명시되도록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정책결정기구에서 여성의 대의성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30석은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좌파 진보당 등 각 정당들로부터 여성에 유리한 차별적 제안이라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내각에 여성문제 전담부를 추가 하자는 제안도 거부당했다.

PNA측은 자치정부 수반선거에 여성인 사미하 칼릴후보가 출마, 아라파트 의장과 맞대결을 벌이게 된 것은 여성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보장됐음을 입증한다는 주장이다.

여성 법률가로 가자지구 법률센터를 운영하는 야올라 하데딘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공익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개인지위법'이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려는 여성은 남성 후견인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그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동예루살렘에서 자치평의회 선거에 출마한 아시라위 후보는 언론 회견에서 자신의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여성 차별을 규제하는 입법과 여성의 조혼, 가정폭력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여성 운동가들은 그러나 여성후보 28명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극히 회의적이며 칼릴여사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시인하고 있다. 이들은 알제리 독립전쟁 당시 여성들이 남성들과 나란히 투쟁해 독립을 쟁취하자 다시 부업으로 쫓겨 들어간 선례가 팔레스타인에서 재연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칼릴 후보는 최종집계결과 9.5%를 득표, 선거 전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후보로서는 놀라운만큼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차이나 3국,

여성 경제활동 지원키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정부 및 민

간개발기구들은 최근 지난해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설정된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열어 여성들의 문맹을 줄이고 여성들의 취업 및 이들에 대한 저리융자를 확대키로 결의했다.

이들 3개국 대표 2백여명은 유엔개발계획(UNDP) 및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관으로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린 사흘간의 회의를 폐막하면서 8쪽에 걸친 추진목표 및 사업계획들을 채택했다.

이 사업계획에는 딸을 학교에 보내도록 각 가정에 유인책을 제시하고 자녀가 딸린 여성들의 취업 지원, 여성들을 위한 기술 훈련강화, 가사부담 경감, 빈민여성을 위한 은행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들 세 나라에서는 모두 여자 어린이들의 취학률이 낮으며 베트남의 경우 여성의 문맹률은 약 20%로 남성에 비해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각국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야만 한다.

여자 어린이 취학률,

전세계적으로 남자에 뒤져

전세계적으로 여자 어린이들은 남자 어린이들에 비해 취학률이 현저히 낮으며 이같은 현상은 특히 사하라 사막 남부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지에서 심각한 것으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1세 미만 여자 어린이중 학교에 못 가는 어린이가 절반을 넘으며 남아시아의 경우 3분의 1이상이, 아랍 국가들에 서는 4분의 1가량의 여자 어린이들이 학

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경우 평균 문맹률은 지난 82년의 65%에서 54.9%로 크게 떨어졌으나 도시 여성 문맹률은 여전히 67.5%, 농촌여성은 8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맹여성들의 평균 자녀수는 7명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평균 2.5명의 자녀를 두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었다.

선진국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취학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교육제도 자체는 이들의 취학을 제한하는 경제·사회·문화적 조건에 비하면 덜 차별적"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빈국들의 정책결정자들은 여자어린이들의 취학문제에 우선적으로 도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성인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의 과학분야 참여가 전체적으로 매우 저조하며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남녀임금격차 크게 줄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 직장 여성과 남성간 임금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우먼' 잡지가 38개 분야 2백50개 직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5~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 조사가 격차를 24%로 집계한데 비하면 훨씬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 책임자인 다이앤 해리스는 정부조사가 남녀임금의 전국평균을 비교한데 비해 자신들은 같은 직종내 임금차이를 비교한 것이라면서 조사결과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능력별 임금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임금격차는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올해도 전반적인 임금인상을 향한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학력이 높고 전문직업훈련을 많이 받은 여성일수록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만 해도 여성들의 평균 출산휴직기간은 7년이었으나 최근에는 불과 1년 남짓한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볼 때 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대학교 교직원과 공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가장 차이가 많은 분야는 의료계 및 금융 분야로 나타났다.

미국 법조계 여성 역할 커져도 차별은 여전

미국 법조계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은 아직도 남자에 비해 소득이 낮고 승진의 기회는 적은 것으로 미국변호사협회(ABA) 조사에서 나타났다.

ABA 여성분과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법조인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3.3%이며 오는 2010년까지는 40%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벽은 존재하며, 성차별은 구조적으로나 관행상으로 또 법조인들의 태도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여성들은 독자적으로 개업하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든 법대에서 강의하든 어이서나 남자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승진의 기회는 적으며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성희롱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여성에게 호의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제니트 리노 법무장관과 제이미 고얼릭 법무차관, 그리고 바로 밀의 정부 임명직 12명중 5명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수긍이 가는 현상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연방판사로 지명한 사람들중 31%는 여성이며 현재 연방법원 판사중 12%가 여성이다.

지난 71년만 해도 미국의 법조인중 여성은 3%에 불과했으나 85년에는 13%로 늘어났다. 올해 법대 1학년생중 여학생 비율은 44%이다. 최근 법대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노골적인 성차별은 크게 줄었으나 일부 여학생들은 교수들이 수업중 토론에서 여학생을 따돌리고 남학생들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한다.

법학 교수진에도 요즘은 전보다 많은 여성들이 진출했지만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시간강사급에 몰려있다.

콜로라도주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변호사들은 연평균 9만5백달러의 소득을 올리지만 같은 경력의 여성들은 불과 6만8천5백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ABA 보고서는 법조계 여성들이 "경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로부터 소외되고, 주요 고객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며 가정을 가졌거나 가지려 할 경우 직업의식이 희박하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근무시간 조정을 요구하면 불성실하다는 낙인이 찍힌다"고 지적했다.

슈퍼마켓 계산대 남녀용 분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인 켈

란탄주 정부는 최근 회교율법에 따라 슈퍼마켓 계산대를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분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민의 95%가 말레이족과 회교도인 켈란탄주 당국은 이미 여성들에게 노래와 춤, 음악회, 연극 관람을 금지한데 이어 최근에는 유원지에서 청룡열차 등 탈 것을 타지 못하도록 금지했는데 이번 조치는 남녀가 뒤섞이는 것을 더욱 엄격히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화교 상인들은 가뜰이나 낙후한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아예 발길을 돌리게 됐다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슈퍼마켓 주인들은 비용이 더 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반대 의견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

▶ 초점

본회와 피해 여학생 학부모들이 '96년도 고입선발고사 남녀합격선 차별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피해여학생 구제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남녀차별 고입선발고사 커트라인 재조정되기까지의 과정



I. 발 단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고입선발고사에서 떨어진 여학생들이 모두 구제되었다. 그동안 여학생은 잘못된 교육행정에 밀려 15세의 어린나이에 성차별적인 합격점으로 고배를 마시고 원하지 않은 실업고에 진학하거나 재수를 하는 성차별을 경험해야만 했다.

남녀차별적인 고입선발고사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 학부모의 용기있는 제보 때문이었다. 딸아이가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여학생 정원이 남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불합격된 것을 안 학부모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항의를 해 보았으나 교육당국에서는 이 사태를 문제로 조차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하는 수 없이 여성단체를 찾아 문제제기나 해보아 겠다고 생각하였다.

여협에서는 학부모의 상담이 있는 후 즉각 교육당국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학급의 정원문제는 각 시·도 교육청 소관이라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실업계는 여학생 정원이 많기 때문에 남녀차별이 아니다" "그동안 여학생 부모들은 쉽게 포기하고 실업계를 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이에 여협은 1월 10일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언론사에 '고입선발고사 남녀차별 합격선 폐지'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고 피해 여학생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였다. 다음날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면서 학부모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차별합격선에 의한 여학생의 피해가 서울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여협은 즉각 행정쇄신위원회에 피해여학생의 구제를 요청하였다. 서울의 경우 남학생 117점, 여학생 138점으로 합격선이 21점이나 차이가 나고 부산 24점, 광주 26점, 대전 21점 등으로 대부분 남·녀 합격선이 20점 이상이나 차이가 났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5~6년간 계속되었다는 것이다.(표 참조)

II. 학부모 모임 결성

처음에 학부모들은 내 딸이 못나서, 공부를 못해서 떨어졌으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였다. 그러나 똑같은 시험을 본 남학생에 비해 20점 이상이나 좋은 성적을 받고도 여학생의 정원이 적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더우기 교육당국에서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여학생의 정원을 늘리겠지만 올해 여학생에 대한 구제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여협에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남녀차별 고입선발고사 피해여학생 학부모 모임'을 1월 19일 주최하였는데 여기에는 10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하였다.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대표를 뽑고 22, 23일 연이은 시위와 대책회의를 계획하였다. 이튿날 학부모 모임과 이 사태에 대한 기사가 전 일간지에 보도되자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전국적으로 이어졌고 뜻을 같이 하겠다는 학부모가 늘었다.

마침내 1월 22일 명동성당 앞에서는 300여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고입 차별합격선 폐지와 피해여학생 구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에서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잘못된 행정으로 4~5년간이나 피해 본 것도 억울한데 올해는 이미 발표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남녀차별 합격선을 폐지하고 이번에 피해 본 여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나올 때까지 우리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할 것이고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갈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집회에는 대전에서 7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하여 대전지역의 상황을 전하고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다행히 집회 도중에 교육부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2시경에 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흩어지지 않고 여협 회의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III. 피해여학생 구제와 교육개혁의 과제

교육부는 전국 6대도시 교육청 관계관회의를 소집하여 '96학년도 인문고 연합고사 남녀 합격선 차이에 따른 여학생 불합격자 구제방안을 협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여학생을 전원 구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부 지역의 마찰이 있었으나 교육부의 재차 지시로 피해여학생들이 구제되었다.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이번 사태를 남학생=인문고교육, 여학생=실업고교육 이라는 고정관념이 교육당국의 인문고와 실업고 비율을 5:5로 하여 기술교육을 육성한다는 방침과 맞물려 빚어진 엄청난 해프닝으로 결론지었다. 실업교육이 진학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남녀별, 지역별로 인문계의 정원을 정해놓고 그 나머지로 인원을 채우는 식이었으니 반발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정을 책임지는 당국의 여성에 대한 태도이다. 여성들은 어느정도 교육을 받고 일하다가 좋은 남자 만나 시집만 잘가면 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없고서야 여학생들을 그의 적성과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교육을 받도록 몰아 넣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어린나이에 교육의 기회에서 조차 성차별을 받는 여학생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년씩 성차별을 당해오면서도 이의제기를 한 학

〈표〉 '91년 이후 연합고사 남·여 합격점

시·도별	'91		'92		'93		'94		'95		'96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112	121	104	120	115	128	102	113	112	129	117	138
부산	78	132	-	129	-	-	98	140	113	139	124	148
대구	-	-	126	134	133	145	134	152	139	149	143	154
인천	89	103	-	116	103	127	110	136	108	127	122	122
광주	105	136	98	129	111	132	105	128	65	106	113	143
대전	145	149	121	140	131	154	84	116	86	120	132	153

부모나 교사가 없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하려는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올해는 교육당국에서 작년에 발표한 교육개혁안

이 뿌리를 내리며 실현될 교육개혁의 원년이다. 우리의 자녀와 미래의 일꾼을 위해 진정 머리를 맞대고 교육을 '개혁'할 때가 온 것 같다.

고입 선발고사 남녀합격선 차별 해결까지의 과정

- 1월 8일(월) 학부모 방문 → 남녀차별 고입 커트라인 제보
여협, 교육부 및 정무제2장관실에 문제제기 및 자료 요청
- 1월 9일(화) 여협, 이사회에 보고, 정식 문제제기기로 함
- 1월 10일(수) 여협, "고입선발고사 남녀차별 합격선 폐지 및 피해 여학생 구제 건의" 공문 발송-대통령,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장,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정무제2장관, 각 언론사
- 1월 11일(목)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에 기사 보도
학부모 문의 시작
여협, 행정쇄신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제기
- 1월 12일(금) 강기원 변호사 행정소송 맡기로 함
- 1월 14일(일) 중앙일보 문제제기 컬럼 게재
- 1월 18일(목) 한겨레신문 문제제기 컬럼 게재
행정쇄신위원회 관계관 회의 개최-교육부, 내년부터 제도 개선할 방침이나 금년 피해 여학생 구제 계획 없음을 천명
- 1월 19일(금) 여협, 피해여학생 학부모 모임 주선
1월 22일(명동성당 앞), 1월 23일(종합청사 뒤) 가두 시위와 1월 24일 대책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과 단식투쟁 등을 결정함
- 1월 20일(토) 각 언론 학부모 모임 일제히 보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
학부모 대표 시위선고 및 시위준비 모임
전국에서 학부모 전화 쇄도
여협, 청와대 및 각 정당에 문제 심각성 알리고 신속한 구제 요청
- 1월 21일(일) 조선일보, 한국일보 고입시험 남녀차별 문제 사설 게재
- 1월 22일(월) 11:00 가두시위(명동성당 앞) 300여명 참가
대전 학부모 76명 합류
10:00 교육부 긴급회의, 피해여학생 구제 긍정적 검토하여 14:00 입장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줌
14:00 교육부, 피해여학생 구제를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 발표
- 1월 23일(화) 서울·부산 등 피해여학생 전원 구제 발표, 각 시·도 교육청 구제안 검토 이후 피해여학생 전원구제됨.



1월 19일, 피해 여학생 학부모 모임(여협 2층 회의실)



1월 22일, 명동성당앞 가두시위

농촌여성의 현황

한정자 (한국여성개발원 교육부장)

한국사회는 1960년대초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급격히 도시화, 산업화, 공업화되어감에 따라 4,000여년간 유지해 온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의 전환을 맞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농촌여성의 삶을 농촌사회의 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보고, 농촌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초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급격히 도시화·산업화되었다. 공업분야의 급성장은 1972년과 73년을 기점으로 농업분야의 비중을 앞지르게 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4,000여년간 유지해 온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농촌여성의 삶을 농촌사회의 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보고, 농촌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1.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
첫째, 산업화는 도·농(都·農)간의 불균형 성장과 농민의 빈곤화를 가져왔다.

지난 30년간의 산업화과정에서 공업분야는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반면 농업은 연평균 3% 정도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이는 도시와 농촌간에 극심

한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였고, 농촌의 황폐화와 농업경제의 사양화를 조장함으로써 농촌에 구조적 빈곤을 초래했다.

1992년 농업소득은 7백35만6천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1천627만3천원의 45.3% 수준이며, 농외소득을 합칠 경우에도 75.8%에 불과하다. 이는 농업의 사양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식량자급율만 보더라도 1960년대 90% 이상에서 1993년 현재 양곡은 30%, 쌀을 제외할 경우 9%에 불과하다. 농업소득원의 축소는 농업경제의 위축과 농민의 빈곤으로 연결된다.

1993년 농가호당 평균부채는 6백82만8천원이며 이는 92년에 비해 20.1% 증가한 것으로 농가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농가부채의 증가율은 농가소득의 증가율을 앞서, 1980~1989년의 농업소득은 3.5배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

는 11.5배 증가하였다.

농업소득은 농민의 가족노동력, 토지, 생산비가 투입되어 얻어지는 것이다. 한데 농업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순수노동수입의 50% 정도에도 못미친다면 현재 우리 농업은 채산성이 떨어짐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년 적자와 부채의 악순환의 상태에서는 농업에 대한 재투자와 애착을 갖기는 힘든 일이다. 이러한 빈곤 상황은 농민 남녀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나, 가난속에서 집안 살림을 꾸리는 농촌주부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둘째,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촌여성의 영농참여 확대를 가져왔다.

산업화 과정에서의 노동력 수요의 폭발은 농촌인력을 대거 산업채로 유입시켰다. 1967년 이래로 연평균 43만명이, 많을 때는 54만명이 농촌을 떠남으로써 농촌인구

는 1965년 55.1%에서 1993년 13.1%로 대폭 감소되었고, 1999년에는 10% 미만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에서 유출된 이들 인력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층과 농촌노동력의 주축이 되어온 청장년층 남성에게 집중됨으로써 농촌에 극심한 노동력부족 현상과 함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성비의 왜곡 현상을 가져왔다. 곧 농촌의 20~39세 인구비율은 1966년 48.5%에서 10년 후인 76년 38.4%, 86년 31.0%, 1993년 현재는 19%로 현격히 줄어든 반면, 50세 이상 연령층은 1965년 13.3%에서 1993년 61.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이들 중 60대 이상이 30.6%로 농촌노동력 고령화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이 농촌여성인력으로 대체됨으로써 농촌여성의 영농참여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농업종사자는 1967년 39.3%에서 1993년 46.0%로 증가되었으며, 농촌여성의 농업노동투하량 역시 1965년 27.5%에서 1990년 47.3%로 증대되었다. 특히 고용노동과 품앗이 노동에서의 여성의 비중은 각각 55.4%, 63.5%로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조사(1986)에 의하면 농촌여성의 99.6%가 농사일을 하고 있고, 81.5%가 농업의 주 노동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 농업의 여성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농촌여성은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여성은 영농활동 이외에 농외소득활동과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가 증대되었다. 이에 더하여 가사노동과 육아·자녀교육이 그 대로 여성력으로 주어짐으로써 과중한 역할부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1989)의 조사에 의하면 농외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주부 혼자인 경우가 72.8%로 대부분을 차지, 여성이 농외소득의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 농가소득 14,505,000원 가운데 농업소득이 50.7%, 농외소득이 30.5%이다. 전년대비 농외소득은 28.9%의 증가를 보여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은 임·수산물 채취, 자영서비스업, 가내수공업, 행사·노점, 공장노

동, 가내부업, 고용서비스업, 농업임노동, 기타 노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은 농촌의식주생활 개선, 문화생활 향상, 자녀학비조달, 취업으로 인한 의료보험 혜택, 정기저축,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 등의 형태로 기여하고 있다.

농촌여성은 농가경제에 주체적인 존재임에도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전담함으로써 과중한 노동부담을 지고 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여성 연령층에서는 다른 가족원의 도움없이 여성혼자 가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1 참조)

이에 따라 농번기 농촌여성은 1일 평균 7시간 52분~11시간 21분의 농업노동과 2시간 58분~4시간 52분의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1일 총 12시간 44분~14시간 19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1〉 농가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의 분담 현황 (단위: %)

구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평균
농가주부	97.8	92.7	97.3	85.9	78.3	91.9(N=1842)
기타가족	2.2	2.3	2.7	14.1	21.7	8.1(N=163)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1987.

〈표2〉 농촌여성의 농번기 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단위: 시간)

구분	1966	1973	1975	1979	1983	1986	1988
농업노동	3시간25분	4시간39분	5시간31분	9시간46분	8시간54분	11시간21분	7시간52분
가사노동	8시간29분	6시간40분	5시간15분	4시간28분	4시간29분	2시간58분	4시간52분

자료: 농촌진흥원, 「농가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1980, 1984, 1988.

농촌진흥원,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1987.

한편 농촌여성들의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증대를 들 수 있다. 이는 농촌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여성의식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농촌여성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다.

우선 여성 삶의 터전인 가족에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었으며, 과거 평균 4~6명의 자녀로부터 1986년 이래 평균 출산율은 1.6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이제는 1~2명의 적은 자녀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가족수는 1960년 5.6명에서 1990년 시·군 모두 3.7명으로 감소하였고, 핵가족화와 가족규모의 축소는 여성의 가사부담과 양육부담을 덜게 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생애주기가 변화되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향상은 인간을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1990년 75.4세(남 67.4세)로 연장되었다. 수명의 연장, 소수자녀출산, 핵가족화는 여성 생애주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즉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후 노부부만의 빈둥우리 가족 형태를 살게 되었으며, 이 기간은 점점 길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덧붙여 여성은 남편 사별 후 10년 이상 더 살게 됨으로써, 노후의 생계와 질적인 삶의 유지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오늘날 농촌노인의 문제는 곧

농촌여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주거환경의 개선, 가전제품의 보급, 시장경제의 발달 등으로 생활용품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의 의식주 생활을 보다 단시간에 간편하고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사와 자녀를 돌보는 이외의 활동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농촌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신문,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에 접할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여성의 사회의식이 개발되고 문화적인 욕구가 증대되었다. 과거 농촌생활의 고달픔을 팔자로 여겨왔던 여성들이 이제는 농촌현실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의식, 비판의식을 갖게 되었다.

2. 농촌여성의 문제와 과제

농촌여성의 문제는 농민여성으로서 한국 농촌과 농업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와 가부장적 농촌사회의 특성때문에 주어지는 성차별적인 문제로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첫째,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다.

오늘날 농촌여성들은 영농활동과 농외소득활동,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면에서는 여전히 하층

은 존재로서 대우를 받고 있다. 곧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노동보수는 개별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농가단위의 수입이자 생활원이 될 뿐이다. 이에 따라 농촌여성의 경제적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노동의 참여를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인식하여 농가주부로서의 지위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여성은 별도의 경제권이나 재산의 소유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영농에 대한 의사결정에의 참여도가 낮고 경제적인 재량권도 적다. 한편 대표적 농민단체인 농협활동에서도 여성은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농업경영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여성의 농민으로서의 직업의식과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여성의 기여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인 평가와 지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농촌여성도 스스로 한 사람의 농민으로서 농업경영의 주체적인 존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농촌빈곤과 농업경쟁환경의 악화는 농촌여성의 빈곤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농촌의 심각한 빈곤상황은 가정살림을 전담하는 농촌여성들에게 더욱 큰 어려움이 되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농가부채중 가계성 부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농촌의 가계가 빚을 내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참조)

셋째, 다중의 역할갈등과 과중한 노동부담을 안고 있다.

농촌여성은 영농활동, 농외소득활동, 지역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가사를 전담하는 등 다양한 역할수행의 어려움 속에서 과중한 노동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남성이 담당하던 농사일은 많은 부분이 기계화 작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앞으로 농촌여성들의 과중한 노동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일을 기계화작업으로 전환시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조작 기술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여성 특히 주부만의 몫으로 주어지던 가사를 가구원 모두가 참여하여 분담토록 개선해야 한다.

넷째, 농촌사회의 봉건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을 차별하고 비인간화시킨다.

도시에 비해 강하게 잔존하는 농촌의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의 인간적인 삶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평등한 지위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농촌여성들이 농촌에 살기를 기피하는 한 원인이며 또한 농촌 총각들을 결혼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하루빨리 농촌사회 문화를 남녀평등문화로 개선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농촌여성들의 경제·사회적 기여에 상응하는 사회적 평가와 인간적 대우가 따라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희망사항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 스스로 조직화, 세력화를 도모하여 가정에서부터 농촌사회 전반에 이르도록 개혁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문화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앞선 시각과 의식 그리고 축

적된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농촌여성들의 의존적 태도와 패배주의를 들 수 있다.

농촌여성들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삼종지도를 미덕으로 삼아 아버지, 남편, 자식에 의존하는 삶을 살도록 길들여져왔다. 또한 농촌사회의 빈곤과 다중의 역할갈등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그 속에 안주하여 '여자의 팔자소관'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농촌여성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여성의식을 개발시키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3〉 농가부채 구성비

(단위: 천원, %)

구 분		'91		'92		'93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92/91	'93/92
농가부채		5,192	100.0	5,683	100.0	6,828	100.0	9.4	20.1
생산성부채		3,600	69.3	4,094	72.0	5,256	77.0	13.7	28.4
가 계 성	교 육 비	225	4.3	200	3.5	234	3.4	-11.1	17.0
	관혼상제비	194	3.8	179	3.2	241	3.5	-7.1	34.6
	문화용품비	36	0.7	49	0.8	56	0.8	36.1	14.2
	기 타	572	11.0	549	9.7	525	7.7	-4.0	-4.4
소 계		1,027	19.8	977	17.2	1,056	15.5	-4.9	8.1

자료: 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계」, 1993.

가정법률상담소, 창립 40주년 앞두고 기념행사 계획

힘없는 여성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어진 한국 가정법률상담소가 올해 10월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다채롭게 펼칠 계획이다.

1956년 8월 이태영변호사가 서울 을지로 입구 여성단체총회관 한 귀퉁이에서 문을 연 가정법률상담소는 1977년 지금의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으로 옮겼다.

그동안 가정법률상담소가 접수한 무료법률상담은 85만4천건, 첫 상담자는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었고 이후로도 상담중 이혼이나 부부갈등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법률상담소가 해낸 일중 특히 돋보이는 것은 가족법개정, 89년 1차 개정 이래 3차의 개정이 진행돼 상속법위를 장남에서 각 남녀형제로 넓히고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한 것이 그 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40년간의 이혼원인 등 상담통계분석결과와 최근의 재혼 급증 등을 토대로 10월 기념행사 기간중 세미나를 두차례 열 계획이다.

정무2장관실, 여성발전기금 조성

올해 여성권익향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고 각종 법제도나 관행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성차별개선위원회」가 생겼다.

지난 1월 20일 정무제2장관실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무제2장관실은 올 한해 사회 각분야의 남녀평등을 앞당기고 여성발전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7월부터

무리없이 시행키위해 여성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만드는 한편 여성발전기금 조성, 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의 제도화 등 세부적인 사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여성발전기금은 국가출연금과 국가의 출연자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며 국가출연금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정무제2장관실은 설명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설치근거를 갖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 사업비나 여성관련시설 운영비 등에 보태쓰기 위한 것이다.

정무제2장관실은 이밖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교육과민을 덜기위해 방과후 아동 지도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2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중인 방과후 아동 지도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 활용, 방과후 아동 지도사의 자격기준 마련 등 법적·제도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정무제2장관실은 밝혔다.

정무제2장관실이 새로 운영하는 성차별개선위원회는 조사연구 및 민원접수를 통해 여성차별사례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집, 관계부처 등에 시정조치를 적극 요구하는 일종의 여성문제 옹부조만제도다.

정무2장관실, 여성백서 출간

정무제2장관실이 여성백서를 펴냈다. 각종 통계중 여성관련 통계를 추리고 분석결과를 결집한 여성백서는 1천5백부가 발행됐다. 여성백서는 85년, 91년 두차례 펴낸 이래 이번에 3번째로 나온 것이다.

정무제2장관실은 앞으로 여성백서를 매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무제2장관실은 이와함께 국제화시대에 세계 여러나라와 여성정책의 보조를 맞춘다는 뜻에서 여성관련 국제협약집도 펴냈다. 이 협약집에는 유엔이 채택한 여성관련 협약중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들이 망라돼 있다.

이 책에 실린 협약들은 다음과 같다.

▲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약칭 여성차별철폐협약·85년 발효) ▲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59년 발효) ▲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62년 발효)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90년 발효)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동규약 선택의정서(90년 발효) ▲ 국제연합 헌장(91년 발효)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91년 발효) ▲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95년) 등이다.

부록으로는 67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선언을 비롯, 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에 관한 선언, 74년 비상상황 및 무력갈등의 여성과 아동보호에 관한 선언, 48년 세계인권선언 등이 담겨있다.

서울YWCA, 여성취업 설명회

서울YWCA는 여성들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직종에 진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성취업 설명회를 지난 2월 2일 서울 명동YWCA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 설명회에서는 피부미용·머리미용·메이크업·독서·글쓰기 지도사·컴퓨터 애니메이션, 텍스타일디자인, 방과후 아동지도사 보육교사, 귀금속 세공, 장신구디자인 등 실용적인 기술관련 직종에 대한 전문가의 소개가 이어졌다.

설명회에 앞서 한시간동안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펼치기도 했다.

이들 직종은 대개 서울YWCA의 독산동 근로여성회관, 노원 일하는여성의집 등에서 취업훈련과정을 마친채놓고 있는 것들이다.

서울YWCA 관계자는 여성들이 좁은 취업문을

열고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자신의 재능에 맞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할당제 여성연대, 여성할당 확대촉구 성명

“15대 총선 전국구 50%를 여성에게”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는 지난 1월 31일 15대 총선 여성할당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8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할당제 여성연대는 이 성명서에서 선거구 재조정과정에서 종래 39석에서 46석으로 늘어난 전국구 의석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해줄 것을 요구했다. 할당제 여성연대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은 전세계 평균치인 11%에 비해 턱없이 떨어진다”며 전국구의 절반인 23석을 여성에게 할당한다해도 세계 평균치에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여성연대는 지역구에 대한 여성공천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전국구를 통한 여성진출이 일정기간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할당제 여성연대는 2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5대 총선 여성공천할당촉구 여성단체대표자모임」을 갖고 각 정당의 여성공천 및 여성정치참여 확대와 관련된 각 정당의 약속이행을 점검했다.

여성연대는 이밖에 15대 총선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공천을 늘리고 전국구 의석의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홀수번호를 여성에게 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여성연대는 지난해 말 15대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기위해 여성에게 지역구에 대한 30% 이상의 공천할당과 전국구 의석의 전부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다.

여성연대에는 여협 및 여연 회원단체들과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 한국여성 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 연맹, 대한YWCA연합회 등이 가입해 있다.

남녀평등의식 담긴 동화집 나와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면 어릴때부터 남녀평등의식을 길러주세요”

한국여성개발원이 어린이들에게 남녀평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동화집을 펴냈다.

「우리는 똑같아요」라는 제목의 이 동화집은 놀이문화, 옷차림 등에서 나타나는 남녀차별과 차이를 지낼 때 여자는 소외되는 현상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차별사례를 담고 있다.

장래희망도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국민학교 수업시간 한 여자어린이가 장래희망을 축구선수라고 말하자 다른 남자어린이가 “그건 남자가 하는 거야, 여자는 간호사 같은 거하면 되잖아”라고 핀잔을 준다. 선생님은 “하고싶은 일을 정하는데 여자, 남자 나눌 필요는 없지. 꼭 하고 싶고 잘하고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꿈을 이루도록 해야지”라고 직업 찾기에 남녀차 없음을 강조한다.

여성개발원은 성역할에 대한 관념이 굳어버린 성인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남녀가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동화집 출간동기를 밝힌다. 여성개발원은 이 동화집을 실비로 일반에도 판매할 예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남녀평등문제를 소리높여 외치는 것도 좋지만 생각이 자라고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아기·아동기부터 남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동화집, 만화영화 등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또다른 ‘조용한 여성운동’이 아닐까 싶다.

이구경 (경향신문 기자)

표지의 말

꽃



류민자 작

류민자씨는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 회화과와 1981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을 졸업했다. 1970년 하인두·류민자 부부전 이래로 12회의 개인전과 80년 서울신문창간 35주년기념 동·서양화 정예작가 초대전, 90년 예술의전당미술관 개관 기념전외 다수의 단체전 및 초대전을 열었으며 75년~77년 일본 동경에서 아세아 현대미술전 및 79년~84년 프랑스 파리의 Art Sacre Art & Matiere Expression Spirituelle 초대, 79년에서 85년 프랑스 파리에서 Comparaisons전 등의 국제전을 가졌다.

제 3회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 및 Association Belgo-Hispanica Belgique 왕족상외 다수를 수상했다.

공보처장관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



본회는 지난 1월 30일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서 오인환 공보처 장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원단체장 및 타여성단체장, 여성계 인사등 120여명의 여성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오장관의 역사바로세우기에 관한 기조연설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보처에서 제작한 공익광고에서 남성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표현한 반면 여성은 주부로만 그려지고 있어 사회참여가 활발한 여성상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시정하고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부각시

키는 공익광고를 만들 것을 건의한다. ▲ 세계화추진위원회의 10대 과제중 하나인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차별 개선과 관련해 공보처 차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 방송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언론사 여기자 채용·승진 등

에 있어 불이익이 많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언론사에 종사하는 여성수가 창피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이에 대해 오장관은 우리나라는 여성이 더 위대한 나라이며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강인함은 존경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방송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우리나라 인기 방송 작가는 모두 여성이며 남성을 오히려 우습게 그리는 것이 문제가 될 지경이고 공보처 관련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주한영국대사부인과 영국 국방부장관 부인, 본회 방문



지난 1월 5일 오후 3시 Mrs. Mei-Ling Harris 주한 영국대사 부인과 Mrs. Carolyn Partillo 영국 국방부장관 부인이 본회를 방문했다.

본회에서는 이연숙 회장과 박영혜 부회장, 국제관계위원장인 대한간호협회 최영희 회장이 참석하였고 여협소개 비디오 상영과 여협 활동소개, 한국의 여성계 소개 및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등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다.

고아원 방문

본회는 지난 12월 29일 연말을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불우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과 나누고자 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고아원인 혜심원을 방문하여 부식 및 선물 등을 전달하고 위로를 하였다.

남녀차별 고입선발고사 피해여학생 학부모모임 및 시위

본회는 지난 1월 19일 남녀차별



고입선발고사 피해 여학생 학부모모임을 가졌다. 지난해 치른 96학년도 고입 선발고사에서 서울의 경우 남학생의 컷라인은 117점인 반면 여학생은 138점으로 21점이라는 큰 차이가 났다. 이에 피해 여학생 학부모 100여명이 본회 2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1월 22일 오전 11시에는 대전 및 서울에서 모인 300여명의 학부모가 명동성당에서 집결해 피켓팅 등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만화책자 발간

본회는 지난해 12월 시민의식의

국제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화책자 「난 아나!」를 발간했다.

「나만이 여사의 시민의식」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책은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가족이기주의,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 자기개발노력 부재, 과소비·낭비의 문제, 성적 위주의 자녀 교육관, 선거의식의 문제, 해외여행시 잘못된 행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주인공의 부정적인 생활단면을 통해 독자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시민의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하기 위함이다.

5천부를 발행해 현재 배포중에 있는 이 책자는 총 44쪽에 전 페이지 칼라로 제작되었다.

매스컴 모니터 활동보고서 III 발간

본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여성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984년부터 매스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해 왔다. 여성운동의 한 방법으로 시작했던 본회 매스컴 모니터회의 활동은 우리 사회에 언론 수용자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본회의 매스컴 모니터링 활동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1984년 이후의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과 교육내용, 세미나·토론회 내용, 조사사업 내용 등을 모두 모아 한권의 책으로 발행하였다. 1990년에 1차 보고서를, 1993년에 2차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간하게 된 보고서는 3차 보고서로서 1차 보고서의 내용과 2차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시켜 활동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함께 담았다.

(총 414쪽, 4×6배판, 무가지)

본회,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본회는 지난 95년 11월 28일자 로 법인세법 제17조 39호에 의거, 기부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다.

통일여성안보회, 회원단체서 제명

통일여성안보회는 3년간 활동이 전무하고 회원단체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관계로 지난 1월 9일 이사회에서 제명되었다. 이로써 본회 회원단체는 33개가 되었다.

직원 승급

이화영 서무보조 직원은 96년 1월 9일자로 서무 간사로 승급되었다.

동정란

이연숙 회장, 방송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장으로 임명

본회 이연숙회장은 방송위원회의 4개 심의위원회 중 연예오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방송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여성이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방송위원회는 영화, 광고, 보도교양, 연예·오락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연숙회장, 호주 방문

본회 이연숙 회장은 지난 2월 1일부터 11일까지 호주 정부 초청으로 호주를 방문했다.

이 기간동안 이연숙 회장은 호주의 여성지도자들과 만나 양국간 여성운동에 대한 의견교환 및 한국여성계 활동을 소개하고, 경제 무역관계지도자와의 접촉을 통해 민간 차원의 외교를 폈다.

대한영양사회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심포지움



대한영양사회와 한국영양학회는 지난 12월 27일 롯데월드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급식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학교장 및 교육부, 시·도 교육청 관계자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급식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밑거름이 되고자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 학교급식 정책의 질적 향상으로의 전환(이보령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의 기조강연, ▲ 급식 실태조사를 통한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 전략(강명희 : 성내국교 영양사, 김은경 : 강릉대 식품과학과 교수)에 관한 연구발표와 ▲ 학교 급식 시설 설비의 합리화 방안(김경주 : 고대구로병원 영양과장), ▲ 학교급식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리 인력 활용 방안(양일선 :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학생의 성장 발육에 따른 다양한 조리 방법 연구(이춘자 : 명지대 생활과학과 교수) 등 3가지 주제발표 및 토의, ▲ 학교급식 영양사들의 육가공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손숙미 :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발표했다.

1997년 국민학교 전면 급식 실시와 함께 중·고등학교까지 854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학교급식 실시가 눈 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이번 행사는 학교 급식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양적 확대와 더불어 학교 급식이 전인 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국여학사협회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실천가정 표창

한국여학사협회는 95년 3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관리공단과의 공동사업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주제로 조사연구 심포지움 교육 및 강연회를 전국 6개 지부와 함께



꾸준히 함으로써 주위에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지난 12월 15일 12시 한국여학사협회 강당에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남다른 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실천을 해 온 가정을 선정해서 표창했다.

이날 표창식에서 한말숙 회장은 한난수 할머니(77세, 순영노인교실 학생)에게 으뜸상을, 권목자회원을 비롯한 13명에게는 비금상을 상금을 함께 수여했다.

으뜸상을 받은 한난수씨는 한국여학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순영노인교실 학생으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환경문제와 에너지절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수차에 걸쳐 서울특별시, 환경청장관, 건설부장관에게 맨홀(오수받이) 정화에 대한 해결책, 생활쓰레기와 재활용법, 낙엽등 부패성 쓰레기 퇴비화 방안등을 진정, 건의해 왔다.

평소 한씨는 “삶의 지혜가 곧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달걀껍질과 과일껍질을 이용하여 세척제 대신 설거지하는 법을 고안했다. 달걀껍질과 과일껍질을 찌서 양파냉는 주머니에 넣어 그릇을 씻는 방법이다.

앞으로도 환경문제를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고안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남은 여생의 포부라고 한씨는 힘주어 말했다.

국제여성승공연합

‘북한의 인권’ 세미나 및 송년회

국제여성승공연합은 지난 12월 21일 세계일보내 국제연수원에서 전 임원단이 모인 가운데 북한의 인권에 대한 세미나 및 1년을 결산하고 마감하는



송년회 시간을 가졌다.

1부는 한명희 중구 회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회옥 총무의 95년 활동보고 및 경과보고가 있었고 문수자 회장의 인사말과 「북한의 인권실상과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강연이 있었다.

이번 강연에서 강조되었던 부문은 북한은 인간존엄성의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을 더이상 외면하여서는 안되고 북한주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권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2부에는 오백합자 이사의 사회로 오찬을 겸한 화동의 시간을 가졌다.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BPW GOLD AWARD 수상후보자 추천공모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은 각 기업과 사회단체에 BPW GOLD AWARD 수상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공모했다. BPW GOLD AWARD는 남녀평등실현과 여성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

본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공보처장관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 •

고입 피해 여학생 학부모 모임 어머니들	200,000원
윤용숙, 이종순, 윤양현 (여성문제연구회)	100,000원
국제존타서울클럽	100,000원
이윤미 (전국여성경영인 총연합회)	100,000원
박동순 (국제존타한국연합회 회장)	100,000원
김의정 (문화재단 「명원」대표)	100,000원
최영희 (대한간호협회 회장)	60,000원
박영혜 (본회 부회장)	50,000원
곽순덕 (대한약사회여약사회 회장)	50,000원
김숙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50,000원
김영희 (본회 근로여성위원)	50,000원
안목단, 한신옥, 김길옥 (한국부녀복지연합회)	50,000원
김기순 (육군본부의무감실 간호병과장)	50,000원
국제여성총연합한국본부	40,000원
서명숙, 오정인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40,000원
남상민 (한국자수문화협회의 회장)	30,000원
이주영 (서울YWCA회장)	30,000원
임경자 (신한국당 여성분과 부위원장)	30,000원
김령자 (한국노총 여성국장)	30,000원
이예자 (우리웃협회 회장)	30,000원
이옥기 (본회 부회장, 대한조산협회 회장)	30,000원

조선훈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30,000원
라성숙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회장)	30,000원
양경자 (신한국당 도봉갑지구당 위원장)	30,000원
조동민 (본회 조직관리위원)	30,000원
신태희 (서울시청 여성정책보좌관)	30,000원
김모임 (대한국족계획협회 회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30,000원
박위자 (한국자수문화협회의 부이사장)	30,000원
이윤정 (우리웃협회 차기회장)	30,000원
최병훈 (이시영초대부통령기념사업회 이사)	30,000원
유위진 (진화랑, 진 아트센터 회장)	30,000원
김영자 (전 자민련 사무부총장)	30,000원
김덕실 (청년여성문화원 사무총장)	20,000원
이경순 (본회 기획위원)	20,000원
이은순 (한국여성예림회 회장)	20,000원
이인숙 (국제존타서울클럽)	20,000원
김영신 (연합통신 부국장)	20,000원
천보경 (천도교여성회본부 회장)	20,000원
조남진 (서울신문 부장)	20,000원

• 후원금 •

고은희 (학부모)	500,000원
공신혜 (학부모)	100,000원
정연순 (학부모)	100,000원
송술영	20,000원
강명자	10,000원
김선희	10,000원
김정문 알로에	10,000원
이채자	10,000원
전경미	10,000원
이기행	10,000원
고입 피해 여학생 학부모모임 어머니들 78명	1,830,000원

• 위원회 오찬 제공 •

서은경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김선영 (기획연구위원회 위원)
주일익 (조직관리위원회 위원)

알림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7조 39호에 의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원자를 모십니다

본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회의 목표와 활동에 찬성하시는 분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여러분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께는 1년분 '여성'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 한강로지점
067-01-001600
또는 지로용지 이용

후원금을 보내신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794-4560, 796-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편집 후기

고입선발고사에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학생보다 무려 20점이나 더 받고도 떨어진 전국의 피해 여학생들이 구제되는 쾌거를 시작으로 병자년, 여협 활동이 시작되었다.

역사바로세우기의 중요성만큼이나 여성의 목소리와 권리가 바로 설 수 있는 96년이 되길 기대한다.

월간여성 · 1996년1·2월호 통권337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 이연숙

편집인 : 김금래

인쇄처 : 코리아 헤럴드

사식 · 편집 : 한라기획

발행날짜 : 1996년2월10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 796-4995

• 편집 :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 서은경

위원 : 김효자/나미레/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 이선명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부서	회기	이이	장장	이정	연연	숙심	부부	회회	이이	장장	박이	영영	해기
서	계	이	사	최	회	순	서	계	이	사	강	옥	자
감	관	위	장	이	요	식	회	구	위	장	양	인	숙
조	리	원	장	김	영	한	감	부	위	장	김	은	애
재	위	원	장	정	순	숙	기	성	위	장	은	정	숙
국	계	원	장	현	영	덕	출	공	위	장	정	말	애
소	호	원	장	희	애	회	근	여	원	장	말	은	자
	연구	원	장	박		주	사	무	원	장	은	정	래

회원 단체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	한	간	호	협	회	영	회	중구 뽕림동 88-7	279-3618	
대	한	기	독	교	어	귀	회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한	국	여	학	사	협	말	숙	도봉구 봉문동 423-44	993-2378	
대	한	조	선	협	회	이	기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	성	문	재	연	구	운	숙	용산구 한남동 738-20 화성빌딩 302호	797-9185	
중	앙	부	인	회	김	취	북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	를	릭	여	성	연	박	주	중구 명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	문	직	여	성	클	럽	이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오피스텔 1804호	704-2284	
한	국	부	녀	복	지	연	안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자빌딩 508호	712-0713	
한	국	여	성	향	공	협	김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007호	786-1216	
대	한	미	용	사	회	중	하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	국	우	먼	스	클	럽	김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한	국	여	성	문	화	생	은	회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94-2112	
국	제	존	타	한	국	연	박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 507호	784-4851	
한	국	여	성	크	리	스	최	자 종로구 평창동 537-9	379-1872	
대	한	악	사	회	여	악	순	덕 서초구 서초동 1489-3 악사회관	581-1201	
우	리	웃	협	회	이	에	이	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3가 3번지 2·3호 백제약국 4층	738-6006	
한	국	식	생	활	개	발	왕	연 영등포구 신길1동 115-14	833-1623	
국	제	여	성	총	연	맹	현	덕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아빌딩 501호	549-5161	
대	한	영	양	사	회	서	은	경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록빌딩 603호	842-2466	
국	제	여	성	승	공	연	문	자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대	한	치	과	위	생	사	숙	함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	국	통	일	여	성	협	고	효 동대문구 전농4동 582-5	244-5208	
한	국	퇴	역	여	군	회	정	숙 성동구 용답동 236-10 삼호오피스텔 412호	214-2990	
고	향	을	생	각	하	는	윤	자 종로구 견지동 111-1	738-1250	
한	국	자	수	문	화	협	남	민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회관 807호	736-5350	
한	·	일	여	성	친	선	박	자 중구 북정동 18 대학문화원 306호	273-7645	
한	·	중	여	성	교	류	협	애 광진구 화양동 48-3 용진빌딩 3층	463-2445	
열	린	세	계	사	회	복	지	자 서대문구 연희동 137-10 영원빌딩 4층	3141-7840	
한	국	여	류	시	각	디	지	숙 강남구 논현동 192-6 범한빌딩 3층	545-6789	
한	국	여	성	불	교	연	합	주 종로구 견지동 39-1 삼운중심 2층 1호	738-5586	
천	도	교	여	성	회	본	부	경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732-6867	
한	국	여	성	정	보	인	협	호 강서구 등촌동 645-11	3662-9417	

협동 회원 단체

협	동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인	천	광	역	시	여	성	단	체	협	의	회	
전	라	북	도	여	성	단	체	협	의	회		
경	기	도	여	성	단	체	협	의	회			
인	천	광	역	시	여	성	단	체	협	의	회	
전	라	북	도	여	성	단	체	협	의	회		
경	기	도	여	성	단	체	협	의	회			